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A Study on King Joongjong's Reading Record in the Gyeongyeon of the Joseon Dynasty

金重權(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言 | 3.3 夕講 및 夜對 |
| 2. 中宗의 經筵制度 |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
| 3. 冊의 選定 및 讀書日程 | 5. 結言 |
| 3.1 朝講 | <參考文獻> |
| 3.2 晝講 | |

< 초 목 >

본고에서는 역대 왕 중 중종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위 1년부터 39년까지 총 38년 2개월간 경연에서 실시한 독서에 관련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즉, 중종이 실시한 경연제도와, 그 제도에 따라 읽었던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회수 및 독서환경에 장애가 된 원인 등을 밝혔다. 그 결과 중종은 尙書, 綱目, 大學衍義, 春秋, 論語 등 총 17종의 책으로 272명의 경연관 및 특진관과 독서에 관련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朝講의 회수는 총 2,703회, 晝講은 총 1,354회, 夕講은 2,053회, 夜對는 131회로 나타났다. 1년부터 14년까지는 독서의욕이 넘쳤으나 그 이후부터는 출석회수가 감소하면서 독서력이 저조했음이 나타났다.

要語: 綱目, 論語, 大學衍義, 尙書, 中宗, 春秋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8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7일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ading record of King Joong-jong in the Gyeongyeon(經筵) of the Joseon Dynasty was investigated. What and how frequently King Joongjong read in the Gyeongyeon that he had established and his reading habits and behavior were examined from the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Gyeongyeon was abolished by King Yeonsangun(燕山君) and re-opened by King Joongjong. King Joongjong read 17 titles, including Gangmog(綱目), Noneo(論語), and Daehagyeonye(大學衍義) in the Gyeongyeon during his reign. He had the reading discussions with 272 Gyeongyeongwans and Teukjingwans, and participated in the morning discussions(朝講) 2,703 times, the afternoon discussions(晝講) 1,354 times, and the evening discussions(夕講), 2,053 times. In the later years, King Joongjong participated less and less in those discussions, while he had been very eager to read and discuss in the earlier years of his reign.

Key words: Gangmog, Gyeongyeon, Noneo, Daehagyeonye, Joong-jong

1. 緒言

연산군은 前考에서 밝혔듯이 세자시절에는 小學, 大學, 中庸, 論語, 詩經, 尙書, 春秋, 少微通鑑, 十九史略, 大學集註 등을 읽었으나 문리를 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결과 집권 12년 동안 독서회수는 480회에 불과하였다. 儒家에 관련된 책은 「大學衍義」와 「綱目」뿐이었으나 흥미위주의 책은 「剪燈新話」·「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西廂記」·「聯芳集」·「香臺集」·「遊藝錄」·「麗情集」등으로 주로 자유독서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밝혔다.¹⁾ 중종의 경우는 세자시절을 경험하지 않고 왕위에 추대된 인물이라 그의 소년기의 독서성향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처한 환경과 그를 지도한 스승, 그가 즐겨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단지 그가 중년에 학문을 좋아했다는 근거가 중종실록 총서에 보인다.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옛날 정치에 뜻을 집중하였으나, 新進만을 專任하였으므로 일이 과격한 것이 많아 뜻을 능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비록 여러 차례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나, 능히 다시 크게 깨우쳐 학문에 열중하였다.”²⁾

그는 왕위에 오르자 연산군 때 폐지된 각종의 제도와 홍문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단된 賜暇讀書를 부활하여 중종 12년에는 東湖讀書堂을 마련하는 등 집권 말까지 70여명 이상의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³⁾ 그 결과 모든 문신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해 당시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수입하고, 번역 출판하여 文興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왕 자신의 인성과 통치를 위해 날마다 경연관들과 독서를 하면서 토론하고 정사를 의논하는 제도인 경연제도를 부활하였다. 경연제도를

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燕山君의 讀書歷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37집(2007), 83.

2) 『中宗實錄』 卷1, 총서, 冊14. p.71.

3) 金重權, “中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8집(1999. 12).

부활한 뒤 부왕인 成宗이 실시한 그대로 三講(조강, 주강, 석강)과 야대를 하면서 꾸준히 독서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재위 39년 동안 기묘사화, 李末孫사건, 안처겸의 난(신사무옥), 동궁의 작서의 변, 전염병, 삼포왜란, 추자도왜변, 동래염장왜변, 전라도왜변, 사랑진왜변 등 수많은 국내외적으로 시련을 겪게 되면서 그의 독서는 물론 성리학까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와중에서 중종은 경연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는지 그의 독서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경된 경연제도를 살펴본 다음 그의 경연일정에 맞추어 독서토론에 참여한 경연관과 그가 자주 읽었던 책, 경연에 참여한 회수 및 독서저해요인 등을 조사하여 그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中宗의 經筵制度

중종(1488-1544)은 1488년 성종과 貞顯王后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懌, 자는 樂天이다. 7세인 1494년에 진성대군에 봉해졌고, 1499년 愼守勤의 딸(당시12세) 단경왕후와 결혼하였다. 1506년 19세에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왕으로 추대된 후 단경왕후를 폐위하고 장경왕후 윤씨(인종의 모친)를 왕비로 삼았다. 1515년 윤씨가 죽자 문정왕후 윤씨(명종의 모친)를 다시 왕비로 삼았으며, 첩은 7명을 두었다. 자녀는 모두 9남 11녀를 두고 1544년 57세로 세상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등극한 뒤 연산군의 폐정으로 문란해진 정국을 바로잡고자 부왕인 成宗이 추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림을 등용하고 유교정치를 실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모든 제도는 성종 때의 제도를 따르면서 경연제도를 부활하고 성종처럼 3강(朝講, 晝講, 夕講)과 夜對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연에는 경연관이 참여하는데 당상관 정3품 이상과 당하관인 낭청으로 구분하였다. 즉, 영사, 지사, 동지사, 특진관, 참찬관의 당상관과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 낭청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으로 모두 겸직하였으며, 문관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영사

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정 2품인 지사와 종2품 동지사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 참찬관은 정3품 승지와 홍문관부제학이 겸직했다. 낭청은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 정6품 검토관으로 모두 문관인 홍문관원이 겸직하였다. 시강관은 直提學, 典翰, 應教, 副應教가 겸하였고, 시독관은 교리와 부교리가 겸하였으며, 검토관은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정7품 司經, 정8품 說經, 정9품 典經은 참외직으로 홍문관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 당시 부활된 경연관 품계는 <表 1>과 같다.

<表 1> 經筵官 品階4)

品階	正1品	正2品	從2品	正3品	正4品	正5品	正6品	正7品	正8品	正9品
職責 및 數	領事 3명	知事 3명	同知 事3명	參贊 官7명	侍講 官	侍讀 官	檢討 官	司經	說經	典經
兼職	議政 이 겸임			承旨 와 副提 學이 겸임						

이 밖에 경연에 入侍하는 관원으로는 특진관 및 翰林, 注書, 臺諫 등이 있다. 특진관제도⁵⁾는 성종 17년(1486)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나 연산군이 폐지하였던 것을 중종조에 다시 회복시켰다. 특진관은 2품 이상의 재상 중에서 선발하여 경연에 참석하도록 하고 왕의 질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대간의 경우는 필히 참여하여 임금의 과실과 조정의 득실을 바로잡고, 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 것을 엄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경연이 정지될 정도였다. 실제 중종 2년 7월 16일에 대간이 참여하지 않아 그 뒤부터 20일 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⁶⁾ 다시 중종 12년(1517)에는 성종조의 제도를 일부 분 개편하였다. 성종조에는 경연관이 아닌 재상이 조강에만 참여했던 것을 중종

4)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13 下.

5) 朝鮮王朝實錄, 成宗 17年 5月 07(辛亥) 卷191. 冊11. p.124.

6) 朝鮮王朝實錄, 中宗 3年 2月 18(己未) 卷3. 冊14. p.164.

12년 10월부터는 조강, 주강, 석강에 2명씩 순번으로 참여토록 개정하였다.⁷⁾ 당시는 夜對에도 미리 선발된 재상은 숙직하면서 대기했다가 부르면 참여하도록 했으나 며칠 후 취소되었다. 1년 후인 중종 13년 12월 12, 13일에 다시 특진관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사간 朴堧는 특진관은 경연관과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정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신은 「大典續錄」의 기록에 따라 2품 이상은 특진관으로 정선하지 말고 입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영사 安瑒도 성종이 경연당상은 경연에서 날마다 볼 수 있으나 타 기관의 당상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신 2품 이상과 육조·한성부를 거친 당상관은 특진관이라 칭하고 입시하도록 한 것처럼, 정선할 것 없이 2품 이상은 모두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중종은 양쪽의사를 절충해서 老病으로 입시할 수 없는 자는 政院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조강, 주강, 석강에 모두 참여토록 하였다.⁸⁾ 그리고 경연의 시작은 대간이 참여해야만 시작하도록 했다. 읽어야 할 책은 중종의 독서력에 알맞도록 경연관들이 평가하여 3강과 야대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중종 36년 집권 말년에 이르러서는 영경연사 1명, 지경연사 1명, 특진관 2명, 참찬과 1명, 대간 각 1명, 상·하번의 記事官인 경연관 3명이 조강에 참여 하였다. 경연장소는 성종의 경우는 宣政殿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나, 중종은 思政殿에서 3강을 실시하고 야대는 丕顯閣에서 실시하였다. 의관은 야대에서만 편복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중종의 경연제도는 성종조의 제도를 본받았다고 하나 중종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冊의 選定 및 讀書日程

中宗의 독서는 정상적으로 승계한 왕들과는 차이가 있다. 선왕들은 우선 왕이 되기 위해 세자시절부터 서연관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왕도의 교육을 받으

7)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10月 8(庚戌) 卷30, 冊15. p.334.

8)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2月 13(戊寅) 卷35, 冊15. p.496.

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책을 선정 받아 단계적으로 읽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종의 경우는 세자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라 체계적인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처음 즉위해서 중종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경연에서는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했다. 그가 읽어야 할 책은 국가의 운영과 왕도에 중점을 둔 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했다. 경연관들이 일정에 맞추어 책을 선정하고 강독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학풍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연관들이 선정해준 책과 독서토론에 참여한 경연관 및 대간들을 독서일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朝講

중종이 집권하자마자 경연제도를 개선한 뒤 영의정 유순 등과 상의하여 조강에 「尙書」, 주장에는 「綱目」, 석강 및 야대에는 「大學衍義」로 결정하고⁹⁾ 집권 1년 9월 26일 思政殿에서 경연을 열었다. 선왕들은 거의 조강에서 「大學衍義」로 시작하였는데 유독 중종은 「尙書」를 조강에 하고 「大學衍義」를 석강 및 야대로 시작하였다. 그 까닭을 영의정 유순은 제왕의 정사하는 원리와 법이 모두 이 「尙書」에 실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 또한 영사 정미수는 “제왕의 학문은 문장이나 구절을 따다가 글을 짓는데 있지 않고, 역대의 선악과 邪正을 거울로 하여 法戒로 삼을 뿐입니다. 지금 진강하는 「尙書」는 나라를 다스리는 大經大法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堯舜의 학문을 본받아 唐虞의 정치를 이로서서.”¹¹⁾라고 한 것으로 보면 「尙書」의 독서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성종의 경우는 집권 3년에 「尙書」의 <홍범편>을 잠깐 읽고 15년부터 주장에서 읽기 시작하여 16년까지 읽었는데, 이는 정치적인 목적과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 성종과는 차이가 있다하겠다. 집권 1년(1506)에는 능천부원군 구수영을 영경연사로 삼고, 侍講官으로 柳崇祖, 李胤, 成夢井, 이세인, 特進官은 박안성, 安潤德, 柳濱, 金崙, 검토관은 金寬, 金綴文, 金乃文, 시독관은 崔淑生, 金世弼, 金安

9)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9月 13(己丑) 卷1. 冊14. p.77.

10)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9月 26(壬寅) 卷1. 冊14. p.81.

11)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10月 4(己酉) 卷1. 冊14. p.84.

國, 金綴文(11월) 등이었다. 당시는 모든 관제를 정비하고 연산조에 문란해진 정권을 바로잡으려 했던 시기이므로 경연에서의 독서보다는 정치적인 토론이 우선이었다. 중종 2년(1507)에는 경연관의 위치가 약간 변경된다. 유송조가 체직되고, 검토관이었던 김관, 김철문이 시독관, 시강관이 되었다. 시독관으로 金寬, 金安國, 金駿孫, 趙舜, 成允祖, 金克愐(11월), 시강관으로는 慶世昌, 金綴文, 金乃文(11월), 검토관은 安處誠, 金乃文, 특진관은 李蓀, 柳濱, 李季男, 李坵, 閔祥安, 安潤德, 成世純 등으로 이들이 주로 경연을 이끌었다. 이들은 조강에 「尙書」를 진강하면서 경연이 학문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경계해야 하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내용과 성색을 멀리하는 임금이 되도록 권장하였다.¹²⁾ 연산군의 폐정에 시달린 문신들은 중종이 선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서하는 중 은연히 성색을 멀리하도록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종은 경연관들과 독서를 하면서도 句讀만 읽고, 질문도 없고 생각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를 지켜본 지평 이현보가 중종 2년(1507) 10월 23일에 독서하는 방법을 일러준 일이 있다. “근일에 經筵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어진 士大夫를 만나시니, 신 등은 기쁘고 경하합니다. 다만 독서하는 법은 단지 句讀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되풀이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中庸」에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한다.’ 하였는데, 지금 경연시에 侍講官이 治道로 論難하지 아니하고 전하께서 또한 하문하지 않으시니, 그 따져 묻고 신중히 생각하는 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제 만일 조용히 강론하신다면 성인의 治道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侍讀官 崔淑生도 이현보의 말을 찬성하면서 중종에게 경연관을 멀리하지 말고 「尙書」의 내용에 따라 본받기를 권하였다.¹³⁾ 집권시 尙書 로 시작한 독서는 언제 완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종 3년(1508) 2월에도 계속해서 「尙書」를 읽었으며, 중종3년 9월 6일에는 참찬관 李世仁과 「春秋」 <莊公篇>을 읽고 토론하고,¹⁴⁾ 10월 11일에는 시강관 崔淑生과 「春秋」 郭亡篇¹⁵⁾을, 동월 13일에는 영사 朴樾과 지사 申用漑 등이 왕이

12)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2月 26(庚子) 卷2. 冊14. p.127.

13)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10月 23(癸巳) 卷4. 冊14. p.198.

14) 朝鮮王朝實錄, 中宗 3年 9月 6(辛丑) 卷6. 冊14. p.275.

마음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는 「尙書」만한 것이 없으니 「春秋」를 읽은 다음 계속해서 尙書 를 읽도록 하였다.¹⁵⁾ 이는 중종이 尙書 를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종의 독서방법이 잘 못되어 이현보, 崔淑生의 지적을 받았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중종 4년(1509)까지 구두만 읽는 형식이었다. 또 다시 그의 독서행태를 장령 金安國, 헌납 柳溥 등이 비판하고, 강독하는 책은 경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문신에게 담당하도록 하였다. 즉 성종조에 「性理大全」을 읽으면서 이학에 밝은 김응기를 당시 경연관이 아니었어도 채용하여 강독하도록 한 실례를 들어 성리학에 힘쓰도록 하였다.¹⁷⁾ 중종은 春秋 를 중종 4년(1509) 8월 28일에 이르러 시독관 洪彦弼과 마지막 막으로 완독하였다. 흥언필이 春秋」를 읽음으로 해서 옳고 그름, 사특함과 바름, 상과 벌, 징계와 권장 등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교훈이 된다는 것을 왕에게 심어주었다.¹⁸⁾ 당시 「春秋」 강독에 참여한 인물들은 영사 朴樾, 成希顔, 참찬관 李世仁, 지사 申用漑, 동지사 鄭光弼, 시강관 崔淑生, 金瑒, 시독관 洪彦弼 등이었다. 「春秋」를 완독한 중종은 중종 4년(1509) 9월부터 「詩經」을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춘추를 같이 완독한 시독관 洪彦弼이 중종 4년 9월 3일에 다시 중종과 「詩經」 <國風> 關雎章을 진강하기 시작하였다.¹⁹⁾ 9월 29일에는 참찬관 宋千禧와 사경 閔壽千 등이 「詩經」을 강독하면서 二南(周南, 召南)은 正風이고 다음 13개의 國風은 變風인데 모두 악관에게 반성하고 경계토록한 것이라 하면서 장악원에서 詩經 의 글을 교습시켜 연례에 사용토록 건의하기도 했다.²⁰⁾ 동 11월 11일에는 시강관 金世弼과 영사 成希顔 등이 「詩經」의 <의차장>을 강독하고 그 내용에 견주어 중종에게 大妃殿에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는

15) 朝鮮王朝實錄, 中宗 3年 10月 11(乙亥) 卷7. 冊14. p.282.

16) 朝鮮王朝實錄, 中宗 3年 10月 13(丁丑) 卷7. 冊14. p.282.

17)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6月 10(庚午) 卷8. 冊14. p.339.

18)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8月 28(戊子) 卷9. 冊14. p.360.

19)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9月 3(壬寅) 卷9. 冊14. p.361.

20)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4月 29(戊午) 卷9. 冊14. p.366.

언질을 주기도 하였다.²¹⁾ 11월 13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조강을 정지하고 12월 19일에 재개하였다. 중종 5년(1510) 1월 21일에는 검토했던 崔命昌, 知事 權鈞, 領事 金壽童, 許磁 등과 「詩經」 <鹿鳴篇>을 읽고 토론하였으며,²²⁾ 1월 24일에는 영사 成希顔 등과 「詩經」 <常棣篇>을 강독하고 임의 형제간의 의리를 논하였다.²³⁾ 다음 날 25일에는 詩經 <伐木篇>을 시독관 金淨, 영사 成希顔, 동지사 鄭光弼, 正言 金正國 등과 읽고 봉우에 대해서 토론하고, 26일에는 「詩經」 <天保篇>을 시독관 李思鈞과 읽고 上下의 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월 7일에는 「詩經」 <六月篇>을 검토했던 李紆, 동지사 金應箕 등과 함께 했으며,²⁴⁾ 2월 10일에는 「詩經」 <鴻雁篇>을 시독관 安彭壽와 읽고 폐왕 때 유리시킨 백성들을 와서 편히 살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다.²⁵⁾ 2월 24일에는 「詩經」 <十月之交篇>을 읽고 동지사 申用개 등과 토론하면서 중종은 일식과 월식에도 상도가 있듯이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도 조정과 함께 의논해서 잘 선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²⁶⁾ 十月之交는 권11. 기보지십의 9篇에 해당한다. 2월 27일에는 <十月之交>다음 장인 詩經 <雨無正>을 사간 허평, 동지사 정광필 등과 읽고 토론하였으며,²⁷⁾ 3월 17일에는 「詩經」 권12, 小旻之什의 8篇인 <蓼莪篇>을 검토했던 沈貞과 강독하고²⁸⁾ 그 뒤부터 4, 5, 6, 7월 까지 강독한 흔적이 없다. 8월 5일에 시독관 李紆, 李蕓, 영사 金壽童 등과 강론한 후 경연에서의 강론은 구두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문신들과 토론을 거쳐 학문의 범위를 넓히고 심오한 뜻을 논하여 정사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왕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²⁹⁾ 8월 9일에는 詩經 <假樂篇>을 영사 盧公弼, 지사 鄭光弼 등과 읽고 토론하였다. <假樂

21)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11月 11(己巳) 卷10. 冊14. p.392.

22)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月 21(戊寅) 卷10. 冊14. p.407.

23)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月 24(辛巳) 卷10. 冊14. p.407.

24)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2月 7(癸巳) 卷10. 冊14. p.410.

25)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2月 10(丙申) 卷10. 冊14. p.411.

26)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2月 24(庚戌) 卷10. 冊14. p.413.

27)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2月 27(癸丑) 卷10. 冊14. p.414.

28)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3月 17(壬申) 卷10. 冊14. p.416.

29)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8月 5(戊子) 卷12. 冊14. p.454.

篇>은 詩經 卷17. 生民之什중에서 5篇에 속한다. 이 자리에서 헌납 成世昌은 「綱目」의 경우 권수가 너무 많아 새로운 것을 읽게 되면 지난 것은 잊어버리게 되니 史書를 택하여 하루에 한권씩 읽도록 권하였다. 중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史記를 모두 다 읽어야 일의 전말을 알 수 있으니 전보다 갑절로 독서량을 늘려주도록 경연관에게 전하도록 했다.³⁰⁾ 9월 18일에는 「詩經」 권19. 周頌의 2장 臣工之什의 1편 <臣工篇>을 전경 柳墩과 읽으면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논하였다.³¹⁾ 8월 9일 가락편 다음 편에서 9월 18일 이전에 읽었던 27편에 대한 기록은 없다. 9월 27일에는 권19. 周頌의 閱予小子之什 중 6편인 <良耜篇>을 읽고 시독관 金希壽와 농사에 대하여 토의하였다.³²⁾ 중종 5년 9월 29일에는 詩經 이 거의 완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중종은 詩經 권20. 魯頌의 4편중에 1편 駟篇의 내용 중 思無邪에 대해서 시강관 申儼, 참찬관 李思鈞 등과 토론하였다.³³⁾ 남은 편수는 有駟, 泮水, 閟宮 등 3편과 商頌의 5편(那, 烈祖, 玄鳥, 長發, 殷武)으로 봐서 모두 완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詩經」을 완독한 중종은 10일쯤 독서를 휴강하고 5년 10월 10일부터는 조강 자료로 大學을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이날 「俗儒記誦詞章之習」 부분을 읽는 중 참찬관 金世弼, 헌납 성세창, 영사 성희안 등이 詞章만을 숭상하여 句讀만 배우고 義理의 근원을 탐구하지 않는 선비들의 문제점과 학교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하였으며,³⁴⁾ 다음 날에도 지평 김굉은 중종에게 「大學」을 읽고 「大學」의 중요성과 몸소 실천하고 터득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10월에 「大學」을 모두 완독하고, 11월부터 「中庸」을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11월 11일에는 「中庸」 13장을 읽으면서 중종 자신이 직접 「忠恕의 道」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좌우 대신들이 질문하고 경연관들에게 답하도록 하였다.³⁵⁾ 11월 21일에는 「中庸」 <九經章>을 읽고 중종이 직접 토론

30)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8月 9(壬辰) 卷12. 冊14. p.455.
 31)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9月 18(辛未) 卷12. 冊14. p.463.
 32)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9月 27(庚辰) 卷12. 冊14. p.465.
 33)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9月 29(壬午) 卷12. 冊14. p.466.
 34)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0月 10(癸巳) 卷12. 冊14. p.467.
 35)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1月 11(癸亥) 卷12. 冊14. p.474.

하도록 하였다.³⁶⁾

중종 6년(1511) 1월부터는 「易經」을 독서자료로 선정하여 읽었다. 중종은 「易經」을 강독하면서 交易과 變易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여 홍문관 사관과 토의해서 그 내용을 승진내관에게 가르쳐 본인에게 알려 달라 하였다. 그러나 부제학 김세필이 타인을 시켜 전강할 수 없으니 직접 나와서 배우라고 하였다. 중종은 그 말을 듣고 경연에서는 시끄러워 기억하기 어려우니 야대에서 가르쳐달라 한 적이 있다. 그 날 야대는 李希孟, 金世弼, 김굉 등이 들어갔다고 한다.³⁷⁾ 1월 12일에는 記事官 李孝彦과 참찬관 金世弼과 강독하였으며, 1월 26일 조강에서는 장령 安處誠, 正言 崔重演이 시강관을 정2품 이상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종2품도 시강에 적합한 인물이 있으니 고려해 달라는 건의와 대사헌, 대사간을 입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그 결과 종2품 중에도 시강할 수 있는 자는 참강하도록 하였다.³⁸⁾ 3월 2일에는 시강관 李沆, 說經 柳墩, 掌令 金協, 司諫 허굉 등과 「易經」 比卦의 元永貞이라는 말에 대해 토론하였으며,³⁹⁾ 3월 21일에는 「易經」 履卦의 九五에 대해서 영사 유순이 설명하고, 그 뒤의 경연에서는 5월과 6월에는 소격서혁과와 성균관 증축, 무사들의 평가 문제들이 대두되었으며, 9월에는 蔡壽가 저술한 「薛公瓚傳」이 윤회회복의 설로 백성들을 현혹케 하였다하여 영사 김수동, 남곤, 검토포관 황여헌 등과 형벌을 논하였다.⁴⁰⁾ 10월 14일에는 「易經」의 <解卦>를 영사 송일 등과 강독하였다. 중종 7년(1512)의 경연에서의 독서는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1월 19일 검토포관 朴祥 등과 「易經」 <풍괘>를 읽었으며,⁴¹⁾ 2월 21일에는 참찬관 金世弼, 영사 金壽童 등과 「易經」 中孚卦의 大象注에 대해 강독하였다. 그 뒤 읽었던 편명은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독서하였다는 흔적은 나타나고 있으며, 4월 1일에는 계몽

36)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1月 21(癸酉) 卷12. 冊14. p.476.

37)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1月 5(丙辰) 卷13. 冊14. p.487.

38)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1月 26(丁丑) 卷13. 冊14. p.491.

39)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3月 2(辛未) 卷13. 冊14. p.498.

40)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9月 20(丁卯) 卷14. 冊14. p.532.

41)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1月 19(乙丑) 卷15. 冊14. p.554.

편을 참찬관 金世弼과 강독하였으며, 4월 2일에는 司成 金安國이 啓蒙 進講官이 되었다.⁴²⁾ 중종 7년 8월 4일에는 조강에 易經 을 주강에 綱目 을 석강에 宋鑑 을 선정하여 읽어 왔는데 여름철 더위로 조강은 계속했으나 주강, 석강은 휴강하여 「綱目」의 진도가 늦어졌다. 때문에 正字 신광한이 영경연의 뜻으로 「綱目」을 가지고 조강, 주강에 모두 독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중종은 「易經」도 중요하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⁴³⁾ 이는 중종이 폭넓은 독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한 책은 끝까지 완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대간들이 미심쩍어 했다. 대사간 趙元紀가 중종에게 “지금 전하께서 반드시 정심과 성의로 공부하실 것이나 신이 전하께서 공부에 힘쓰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⁴⁴⁾ 라고 한 것은 송대에 朱熹가 말한 正心과 誠意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묻은 것 같다. 「周易」을 완독한 뒤 중종은 신광한의 건의대로 조강에 「綱目」을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중종 8년(1513), 9년(1514)에도 독서자료로 「綱目」을 선정하였다. 9년 1월 27일에는 시독관 蘇世讓과 강독하였으며,⁴⁵⁾ 1월 28일에는 시강관 허굉, 2월 11일에는 영사 정광필과, 2월 13일에는 지사 孫澍, 2월 19일에는 시강관 崔命昌, 2월 23일에는 집의 金楊震과 강독하였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典經 金綵가 「綱目」 ‘吳越의 왕이 간특하고 비밀스런 일들을 들춰내므로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였다.’는 부분과 ‘李壽가笏을 단정히 하고 殿陛 앞으로 바짝 가서 論辯할 때에 음성과 기색이 모두 격렬하므로, 晉主가 노하여 꾸짖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중종이 행해야 할 일을 지적하였다.⁴⁶⁾ 3월 12일에는 참찬관 朴召榮이 「綱目」 내용 중 ‘史

42)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4月 2(丙子) 卷15. 冊14. p.566.

43)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8月 4(乙巳) 卷16. 冊14. p.603.

“弘文館正字 申光漢, 以領經筵意啓曰: ‘前日朝講 「周易」, 晝講 「綱目」, 夕講 「宋鑑」, 頃以炎熱, 只御朝講. 今則日(侯) [候] 漸涼, 若復御三時, 則當講<圖說>, <繫辭>, 然其義備於<啓蒙>, 不必速講. 進講 綱目 甚久, 且古今事變, 必欲先知, 朝晝竝講 綱目, 夕講 「宋鑑」 何如?’ 傳曰: ‘ 「綱目」 進講, 果日久. 然 「易經」 亦大, 宜先畢講.’ ”

44)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11月 11(辛巳) 卷17. 冊14. p.622.

45)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月 27(辛卯) 卷19. 冊14. p.707.

46)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2月 29(癸亥) 卷20. 冊15. p.6.

弘肇가 母喪 중에 起復하였다.’는 부분을 연산조와 비교하며 설명하였으며,⁴⁷⁾ 4월 24일에는 허굉과 「綱目」중 「周나라 世宗이 농사에 마음을 두어 田租를 고르게 정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公田의 측량」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⁴⁸⁾ 「綱目」은 중종 9년 4월 25일에 모두 완독하였다. 사실 부왕인 성종의 경우는 한명회의 추천으로 성종 5년(1474)부터 「綱目」을 읽기 시작하여 9년(1478)에 마쳤으니 5년이 소요되었으며, 중종은 집권하자마자 「綱目」을 설정하여 9년(1514)까지 읽었으니까 9년이 소요된 셈이다. 독서의 속도가 성종 보다 4년이나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읽기의 속도가 이와 같이 지체되니까 앞에서 기술했듯이 중종 7년(1512)에 영사 신광한이 조강에도 「綱目」을 읽도록 권장한 적이 있다. 「綱目」을 완독하고 조강에서 읽을 다음의 독서자료로 「禮記」가 선정되었다. 그 해 4월 28일부터 시강관 李彦浩와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恭敬」에 대해 토론하였으며,⁴⁹⁾ 8월 8일에는 「禮記」의 「임금을 섬김에는 범함이 있을지언정 숨김이 없다.’는 부분에 이르러 시강관 尹殷輔가 설명하였다.⁵⁰⁾ 8월 10일은 「禮記」를 읽으면서 曾子가 「簞을 바꾸라.’고 한 부분에서 시강관 許磁이 설명하였으며,⁵¹⁾ 8월 14일에는 시독관 趙邦彦, 9월 25일에는 시독관 민수천과 함께 하였다. 11월 12일에는 「禮記」를 읽으면서 「文伯의 초상에 朋友와 여러 신하는 웃하지 않았는데도 內人은 모두 곡을 하여 失聲하였다.’는 부분으로 사경 金練가 그 원인을 설명하였으며,⁵²⁾ 11월 14일에는 시강관 許磁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월 29일에는 시독관 任樞가 「가혹한 정사가 범보다 무섭다.’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독서한 뒤에 사간 李彦浩와 존경각 화재로 장서가 모두 불타버리자 그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⁵³⁾ 중종 10년(1515)에도 계속해서 「禮記」을 강독하였다. 7월 26일에는 영사 鄭光弼과 「禮記」를, 8월 10일에는 설경

47)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3月 12(乙亥) 卷20. 冊15. p.8.
48)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4月 24(丁巳) 卷20. 冊15. p.13.
49)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4月 28(辛酉) 卷20. 冊15. p.13.
50)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8月 8(戊戌) 卷20. 冊15. p.22.
51)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8月 10(庚子) 卷20. 冊15. p.23.
52)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1月 12(庚午) 卷21. 冊15. p.41.
53)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2月 3(辛卯) 卷21. 冊15. p.46.

任權과 「禮記」를 읽으면서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토론하였으며,⁵⁴⁾ 8월 15일에는 「禮記」를 읽다가 ‘喜怒哀懼愛惡欲’ 일곱 가지 감정은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나 禮가 아니면 어떻게 이를 다스리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侍讀官 申光漢이 설명하기도 하였다.⁵⁵⁾ 중종 11년(1516)에도 「禮記」를 계속해서 읽었다. 1월 28일에는 시독관 李清, 5월 8일 영사 신용개, 5월 19일에는 申光漢, 영사 申用漑, 장령 金希壽과 정언 表憑, 동지사 南袞 등과 「禮記」를 읽고 음악의 개정, 長利와 忌晨齋 폐지문제 등을 가지고 토론하였으며,⁵⁶⁾ 6월 4일에는 영사 정광필의 건의로 경연에 당상 1명이 성종조 처럼 조강, 주장, 석강에 1명씩 참여하도록 건의하여 성사되었다. ⁵⁷⁾ 9월 21일에는 禮記 를 읽고 ‘棺에 딸린 것과 親에 딸린 것’이란 문장을 가지고 3년 상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⁵⁸⁾ 11월 2일에는 사경 기준과 효자를 임용하는 문제로 논의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禮記, <제례>에서 사경 기준과 논의, 11월 15일에는 지사 張順孫과 「禮記」 <祭統篇>을 강독하였다. 중종 12년(1517)에도 「禮記」로 조강을 하였다. 동년 1월 20일부터 검토폰 조광조와 「禮記」를 읽었으며,⁵⁹⁾ 2월 28일 <儒行篇>을, 3월 25일 집의 柳溥와 「禮記」를 강독한 뒤부터는 禮記 의 독서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중종은 「禮記」를 9년 4월부터 읽기 시작하여 12년 중반기까지 3년에 걸쳐 모두 완독한 것으로 보인다. 「禮記」를 완독한 중종은 12년 8월부터 大學衍義 를 조강자료로 선정하였다. 8월 12일에 중종은 大學衍義의 文王篇을 중심으로 참찬관 金淨, 사경 鄭應, 참찬관 趙邦彦 등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⁶⁰⁾ 동 20일에는 시강관 조광조, 知事 張順孫 등과 「大學衍義」 雲漢篇을 읽으면서 제사의 문제점, 이단배척, 인재시취 등에 대해서 토의하였으며,⁶¹⁾ 조광조는 그 이후 8월 24일 典翰으로 승진 특혜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기

54) 朝鮮王朝實錄, 中宗 10年 8月 10(甲子) 卷22, 冊15. p.99.
 55) 朝鮮王朝實錄, 中宗 10年 8月 15(己巳) 卷22, 冊15. p.101.
 56)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5月 19(己亥) 卷25, 冊15. p.174.
 57)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6月 4(甲寅) 卷25, 冊15. p.187.
 58)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9月 21(己亥) 卷26, 冊15. p.216.
 59)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1月 20(丙申) 卷27, 冊15. p.255.
 60)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8月 12(乙卯) 卷29, 冊15. p.311.

도 하였으나 반려되기도 하였다.

중종 13년(1518)에도 계속해서 「大學衍義」를 읽었다. 1월 12일에는 참찬관 李紉, 영사 鄭光弼 등과 함께 「大學衍義」를 읽으면서 ‘범백이 幽王을 풍자하다.’는 내용으로 토론하였다.⁶²⁾ 3월 10일에는 경연에서 참찬관 김정 등과 名醫 추천 문제와 의서인출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大學衍義」를 읽으면서 임금의 사랑에 대해서 중종이 직접 발제하여 토론하기도 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자는 시강관 申光漢, 장령 閔壽千, 동지사 남곤, 공서린 등이었다.⁶³⁾ 4월 25일에는 「大學衍義」중 ‘梁冀가 士大夫를 살해’한 부분을 특진관 孫澍와 논하였으며,⁶⁴⁾ 4월에 「大學衍義」를 완독하고 5월부터는 조강에서 독서자료로 「續資治通鑑綱目」을 선정하였다. 5월 7일에 검토회관 孫洙와 「續資治通鑑綱目」을 읽었으며,⁶⁵⁾ 5월 26일에는 「續綱目」에서 ‘雷德驤이 趙普의 일을 논하는 부분(宋나라 때 뇌덕양이 조보의 탐학 무도한 비행을 宋主 앞에서 논한 일)’으로 사간 申光漢과 지평 任權, 시강관 韓忠 등과 토론하였다.⁶⁶⁾ 중종 13년 7월 12일에는 조강에서는 申用漑, 金詮, 南袞 등이 撰修한 「續東文選」⁶⁷⁾을 올렸으며, 7월 26일에는 「소학」에 이어 「近思錄」을 인출하여 반포하도록 했다. 10월 12일에는 조강에서 중종은 “인종이 원호가 반역한 뒤부터 경연에 나가지 않았다.’ 하니 어찌 변경의 警報때문에 경연을 폐해서 되겠느냐? 옛사람이 ‘말에서 내려 도를 논하고 창을 놓고 글을 강하였다.’하였으니 이것으로써 경연은 유사시일수록 더욱 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⁸⁾고 한 것은 중종이 경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월 17일 참찬관 朴英은 중종이 10여년 이상을 경연에서 강론

61)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8月 20(癸亥) 卷29. 冊15. p.317.

62)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12(壬子) 卷31. 冊15. p.387.

63)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3月 12(辛亥) 卷32. 冊15. p.408.

64)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4月 25(癸巳) 卷32. 冊15. p.424.

65)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5月 7(乙巳) 卷33. 冊15. p.430.

66)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5月 26(甲子) 卷33. 冊15. p.444.

67)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7月 12(己酉) 卷34. 冊15. p.461.

成宗 이후의 詩文을 모아 엮은 책, 21권, 東文選은 徐居正이 신라시대부터 조선 성종조에 이르기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1백 30권을 성종 9년(1478)에 출간하였다.

68)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0月 12(戊寅) 卷34. 冊15. p.484.

하고 독서했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중종도 수궁하면서 독서의 결과가 정치적인 효과를 빨리 보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반문하였다.⁶⁹⁾ 사실 중종은 당시 성리학을 신봉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11월 6일에는 경연에서 「性理大全」을 진강하는 데 합당한 인물을 선발하여 미리 강습시키려고 26명을 선발하여 승정원에서 보고하자 중종은 이들과 홍문관 대제학 및 제학, 그리고 김안국, 이자, 김정, 조광조 등이 상대토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⁷⁰⁾ 그러나 바로 「性理大全」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인 중종 14년(1519) 5월에 다시 선발하도록 하여 21명을 선출하였는데⁷¹⁾ 1차 선발 시 상대토론자인 김안국, 이자, 김정, 조광조가 선발되어 경연에 참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몇 개월 후 이들은 축출되고 말았다. 중종 13년 11월 22일에는 그의 심증을 헤아린 김안국이 북경에서 구입한 성리학관련 서적 「語孟或問」, 「庸學或問」(宋, 朱子), 「家禮儀節」(明, 丘濬 刪定), 「傳道粹言」, 「張子語錄」, 「經學理窟」, 「延平問答」, 「胡子知言」, 「古表精粹」등을 중종에게 바치기도 하였다.⁷²⁾ 성리학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독서한 중종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여 정오를 넘길 때도 있었다. 13년(1518) 12월 17일에 夜對에 참여한 참찬관 金淨이 경연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중종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중종이 조강에서 열심히 글을 읽고 토론함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오가 다 되어서야 파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 날은 조강을 정지하였는데 그 사유를

69)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0月 17(癸未) 卷34. 冊15. p.484.

70)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1月 6(壬寅) 卷34. 冊15. p.489.

“선발에 참여하게 된 사람: 孔瑞麟, 金正國, 申光漢, 金絿, 閔壽元, 奇遵, 鄭應, 權雲, 具壽福, 尹衢, 李認, 鄭順朋, 閔壽千, 柳墩, 韓忠, 尹自任, 崔山斗, 丁玉亨, 朴世熹, 黃孝獻, 李若水, 張玉, 李忠健, 李希閔, 曹彥卿, 金湜 등 26명.”

71)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5月 17(己酉) 卷36. 冊15. p.537.

“政院選 「性理大全」 可講人, 書啓 南袞, 金安國, 李籽, 金淨, 趙光祖, 金世弼, 申光漢, 金正國, 金絿, 洪彥弼, 金湜, 韓忠, 朴世熹, 奇遵, 鄭應, 張玉, 趙佑, 李希閔, 黃孝獻, 權雲, 李忠健 등 二十一人.” 燃藜室記述 卷7 <中宗故事本末>, 己卯禍源에는 南袞, 金安國, 李籽, 金淨, 金世弼, 趙光祖, 申光漢, 金正國, 柳雲, 金絿, 洪彥弼, 金湜, 韓忠, 朴世熹, 奇遵, 鄭應, 張玉, 趙祐, 李希閔, 黃孝獻, 權雲, 李充樾 등 23명을 강습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72)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1月 22(戊午) 卷34. 冊15. p.493.

물은바 증중은 지난번 정오가 되었는데도 점심을 주지 않아 미안해서 정지한 것이라 하였으며, 점심은 예부터 제공하지 않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⁷³⁾ 사실 역대 선왕들은 조강을 점심시간까지 하지 않았으므로 식사한 적이 없다. 다만 야대할 때만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었다. 증중은 그 이듬해인 14년(1519)에도 계속해서 『續綱目』을 읽었으며, 1월 29일에는 「續綱目 <宋神宗記>」를 읽으면서 장령 金湜, 영사 정광필 등과 법규개정 및 인사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⁷⁴⁾ 4월 21일에는 경연관이 겸직한 예가 없었는데 金湜의 경우 성균관 司成이므로 경연관에 합당하다해서 홍문관 경연관으로도 임명하여 성균관에도 출사하고 경연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⁷⁵⁾ 4월 22일에는 『續綱目』을 읽고 임금이 일상 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여자사관 채용’ 대해서 동지사 김안국, 장령 기준, 시강관 이칭 등과 논의하였다.⁷⁶⁾ 4월 28일에도 「續綱目」 宋神宗記를 시강관 金絳와 강독하고, 7월 3일에는 조강에서 장령 朴薰, 동지사 金淨, 李希閔 증중이 『小學』을 즐겨 읽음으로 해서 전에 비웃던 것을 좋아하는 책이 되었다는 것과 서적배포의 대책인 ‘서사설치’, 치재시 경연 실시 문제 등에 대해서 거론 하였다.⁷⁷⁾

증중 15(1520)에도 계속해서 「續綱目」을 읽었다. 1월 9일에는 <欽宗紀>를 읽고, 시독관 孫洙, 許遲, 영사 金詮, 장령 蔡忱, 정언 韓承貞과 토론하였으며,⁷⁸⁾ 2월 4일에는 『續綱目』의 徽宗·欽宗 때의 충신과 의사에 대해서 시강관 鄭士龍, 영사 金詮 등과 토론하였다.⁷⁹⁾ 3월 4일에는 시강관 박수문과 4월 4일에는 시강관 임추, 영사 이유청 등과 독서하였으며, 5월 27일 까지 열심히 독서하고 그 뒤 5일간 경연에서 독서를 중단하였다. 5일간 독서를 중단한 증중은 6월 3일에 “요즈음 죄수를 심문하는 일로 께안이 소란스러워 경연을 오래도록 정지하였는데, 내일은 河珽만 심문하면 조강 뒤에도 국문할 수 있으니 6월 4일부터 경연에 나가겠

73)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2月 17(壬午) 卷35. 冊15. p.497.

74)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1月 29(甲子) 卷35. 冊15. p.505.

75)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4月 21(甲申) 卷35. 冊15. p.529.

76)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4月 22(乙酉) 卷35. 冊15. p.529.

77)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7月 3(甲午) 卷36. 冊15. p.551.

78)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1月 9(戊戌) 卷38. 冊15. p.609.

79)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2月 4(癸亥) 卷38. 冊15. p.619.

다.”⁸⁰⁾고 하였다. 약속대로 중종은 6월 4일 경연에서 시강관 任樞, 지평 南孝義, 참찬관 尹希仁 등과 「續綱目」을 강독하며 토론하였다.⁸¹⁾ 6월 19일의 조강에서는 책을 읽고 동지사 李沆, 영사 이유청, 특진관 윤순, 지평 김섬, 참찬관 박호, 시독관 소세량, 典經 李海, 특진관 崔重洪 등과 중국의 사마광과 왕안석의 학문이 대립된 일이 있듯이 조강조의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견제해야한다는 등의 토론을 하였다.⁸²⁾ 9월 30일에는 영사 南袞, 知事 洪淑, 대사간 趙邦彦, 특진관 孫澍 등과 「續綱目」 孝宗紀를 강독하며 ‘임금이 葉衡에게 한 말’을 주제로 토론하였다.⁸³⁾ 중종이 「續綱目」을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발표한 것으로 보면 독서력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10월 21일에도 중종이 송나라 ‘趙汝愚’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강관 蔡忱의 생각을 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종: 趙汝愚는 君臣의 變에 있어서 잘 주선하고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데다가 定策한 功을 자랑하지도 않았으니 그의 현명함에 남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 후세 사람들은 작은 공이 있더라도 다들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조여우의 일은 신하된 자로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蔡忱: 孝宗이 살아 있을 때에 光宗이 본디 아들의 도리를 잃고 효종이 죽자 執喪하지 않아서 크게 여망을 잃었으므로 조여우가 부득이 權道를 베풀어 嘉王을 策立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宋나라의 柱石의 공인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으니, 남들보다 훨씬 착합니다. 寧宗이 조여우를 신임하였다면 송나라의 정치가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터인데, 韓侂胄에게 견제되어 도리어 조여우를 배척하였으므로 한탁주의 무리가 진용되었기 때문에 송나라가 마침내 멸치지 못하였으니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종: 군자와 소인은 각각 類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므로, 한 소인을 진용하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더라도 무리를 끌어다가 진용하게 하여 마침내 국가의 환난을 만드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⁸⁴⁾

이와 같이 중종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경연관들과 토론을 즐기기도

80)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6月 3(己未) 卷39. 冊15. p.663.

81)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6月 4(庚申) 卷39. 冊15. p.663.

82)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6月 19(乙亥) 卷39. 冊15. p.669.

83)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9月 30(甲申) 卷40. 冊15. p.695.

84) 朝鮮王朝實錄, 中宗 15年 10月 21(乙巳) 卷40. 冊16. p.698.

하였다. 15년에는 12월 2일까지 경연에서 독서하고 추위와 齋戒등으로 경연을 정지하다가 12월 16일부터 다시 조강을 시작하였다. 중종 16(1521)에도 「續綱目」으로 독서하였다. 동년 9월 4일에는 영사 남곤, 참찬관 尹殷弼 등은 조강에서 修身할 수 있는 길은 「大學」만한 책이 없으며, 요즈음 선비들이 마음만 다스린다고 하면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한 때 「小學」을 멀리하여 그 폐단이 나온 것으로 여기면서 학교를 세워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참찬관 崔世節은 「大學章句」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열심히 독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⁸⁵⁾ 또한 10월 1일에는 대사헌 曹繼商, 영사 金詮, 사간 金麟孫 등과 함께 성균관이나 사학에 실력이 있는 학생이 없다는 점, 과거를 보아도 옛날과는 달리 불만한 글이 없어 학교교육의 절실함과 실력 있는 선생임용 문제, 事大를 위한 吏文과 漢語습득문제 등을 토론하였다.⁸⁶⁾

중종 17(1522)에도 「續綱目」을 선정하여 1월 8일에 시독관 金銛과 독서를 시작하였다. 2월 8일에는 「續綱目」을 읽으면서 인재등용에 심중해야한다는 문제,⁸⁷⁾ 2월 10일에는 馬政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2월 27일에는 「續綱目」 <元成宗紀>를 읽으면서 중종은 지사 심정, 헌납 魚泳濬, 특진관 이계맹 등에게 도둑이 많이 발생하니 형벌로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수령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아 빈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부역을 감하고 세금을 적게하여 백성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해야지 형벌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⁸⁸⁾ 이는 그동안의 독서력으로 인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 것으로 봐야 한다. 3월 9일에도 <元成宗紀>를 읽으면서 同知事 金謹思, 시강관 蘇世良, 영사 이유청, 대사헌 윤은보, 특진관 李繼孟 등과 元成宗이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을 믿고 변방의 공을 세우려하는 일을 비판한 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야인들의 축출문제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⁸⁹⁾ 그 뒤부터는

85) 朝鮮王朝實錄, 中宗 16年 9月 4(壬子) 卷42. 冊16. p.61.

86) 朝鮮王朝實錄, 中宗 16年 10月 1(己卯) 卷43. 冊16. p.64.

87)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2月 8(乙酉) 卷44. 冊16. p.97.

88)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2月 27(甲辰) 卷44. 冊16. p.101.

89)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3月 09(丙辰) 卷44. 冊16. p.104.

독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중종 18년(1523) 1월에도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소격서혁과문제로 사헌부, 사간원 등의 관리끼리 혼란을 거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월도 27, 28일 양일간, 3월에는 6일, 8, 9, 14일 등 4일간 독서하는데 그쳤다. 4월에는 1회, 윤4월에는 3회, 5월은 5회, 6월 1회 7월 2회, 8월 4회, 9월 6회, 10월 5회, 11월 2, 12월 2회 총 37회로 거의 조강을 하지 않았다. 중종 19년(1524)에도 조강을 쉬는 날이 많아 독서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으며, 중종 20년(1525)에는 온 나라가 여역문제로 심각하였다. 1월 23일에는 함경도, 평안도에 벽온방과 약제를 내려 보고 「續辟瘟方」을 간행하여 배포하도록 하는 등 소란의 정국이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중종은 어렵게 「續綱目」을 완독하였다. 「續綱目」은 13년부터 시작하여 20년 2월까지 읽었으니까 약 8년이 소요된 것이다. 다음 책으로 3월부터 「大學衍義補」⁹⁰⁾를 독서자료로 선정하였다. 7월 22일까지 조강을 하고 더위 때문에 8월 1일까지 정지 하였다. 중종 20년 8월 20일에는 영사의 뜻으로 주장에 「大學衍義」는 거의 완독하고, 조강에 읽고 있는 「大學衍義補」는 권질이 많으니 조강, 주장에 읽기로 하고 석강과 야대는 「春秋」를 읽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중종은 “건의한 뜻이 진실로 좋으나 「綱目」이 150권인데 임금이 독서하려면 역사기록을 보아 흥망한 자취를 관찰해야 한다. 내가 「綱目」을 읽은 지 오래되었으니, 다시 영사에게 물어 보아 주장과 야대에는 모두 「綱目」을 진강하도록 하라.”하였다.⁹¹⁾ 8월 28일에는 「大學衍義補」를 강독하고 정응린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생물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영사 남곤, 참찬관 黃孝獻과는 경연에서의 독서방법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중종: 흥문관에서 말했는데, 경연할 때에 나는 소리 내어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90) 大學衍義補는 명나라 丘濬이 보주한 책이다. 총 54책 160권으로 중종이 중종 10년(1515) 급속활자로 간행하여 문신들에게 內賜한 바 있다. 당시 영천군수 權檣(1478-1548)에게 내사한 책이 현재 경북 봉화군에 사는 그의 후손 권정우씨가 41책을 보존하고 있다(1986년 보물 제896-7호로 지정됨).

91)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20(丁未) 卷55. 冊16. p.447.

영사 남곤: 신이 조정에 벼슬한 지 오래지 않아 出身한 것이 先王의 말년입니다. 그러나 즉시 侍從이 되었었는데, 신이 보거나 듣거나 한 때에는 상께서 일찍이 聲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일찍이 들건대, 상께서 소리 내어 한번 읽으실 때 대신이 아뢰게 되어, 상께서 다시는 臨讀하지 않으셨다는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에, 아래 사람이 音과 釋音을 각각 한 번씩 진강하고 상께서는 聲讀하시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 신들이 의논한 지 이미 오래니다마는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강목」은 역사 중의 經書로서 治亂에 관한 일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졌으니, 독서량을 늘리시길 바라는데 상께서 만일 한가한 동안에 조용히 완미해 보신다면, 群臣들에게 임하셨을 적에는 읽으실 것이 없습니다.

참찬관 黃孝獻: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進啓할 수가 없지만, 이는 경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임금은 번거로운 온갖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어찌 매양 독서를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니 마땅히 군신들에게 임하는 정신과 기운이 淸明하실 때, 상께서 소리 내어 읽으시자면 자연히 성상의 마음을 단속하여 다스리시게 될 것이고, 더구나 아랫사람들이 들을 때 누군들 듣기가 즐겁지 않으리까? 대저 보통 사람들이 독서할 때 혼자 있으면서 읽거나 벗을 대하여 읽거나 하는데, 벗을 대하여 읽으면 혼자서 읽을 때보다 더 유익합니다. 어제 홍문관이 아뢰기를 ‘聖學이 고명하시므로 소리 내어 읽으실 것이 없다.’ 하매, 성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내가 어찌 고명하게 여기고 소리 내어 읽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한 史冊에 쓰일 것이니, 어찌 후세에 아름다움을 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께서 소리 내어 읽으심이 합당합니다.”⁹²⁾

이는 중종이 글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도록 한 것과 중종의 독서량이 적어 늘리기를 권유한 내용이다. 동년 9월 14일에는 「大學衍義補」 ‘太宰가 균등하게 절도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참찬관 李芻 등과 선공감의 炭사용에 대한 민폐와 국비활용에 대해서 토론하였다.⁹³⁾ 그 후 중종이 경연에 잘 나오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는 대사간 南世準 등이 11월 22일에 상소를 올렸다.

“전하께서 즉위한 처음에는 수신하는데 부지런 하고 학문에 뜻이 예민하여,

92)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28(乙卯) 卷55. 冊16. p.449.

93)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9月 14(庚午) 卷55. 冊16. p.452.

經筵에서의 顧問을 하루도 폐한 적이 없으셨는데, 요사이는 경연의 召對를 폐하는 날이 자못 많고, 비록 晝講과 夕講은 부지런히 하지만 朝講에 나오시는 일은 드뭅니다. 대저 조강은 곧 대신이나 대간들과 의리를 講磨하고 時政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갓 聖學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도리에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큰 추위나 더위에는 혹 聖體에 해로울까 염려되지만, 따뜻한 날에도 더러 나오지 않으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계속하여 밝히시는 정성이 독실하지 못하신가 싶습니다.”하였다.⁹⁴⁾

이는 중종의 게으름을 미연에 방지해서 독서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중신들을 만나 시정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다. 20년 11월 29일에는 중종이 경연에서 얘기한 내용의 출전을 고찰하도록 한 것을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중종: 전일의 경연 때 ‘요사이 경연에서 國風을 進講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獻議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못 聖經의 뜻을 망각한 말이다. 경연관이 왕안석의 말이라고 했지만, 다시 고찰해 보니 왕안석의 말이 아니었는데, 홍문관은 이미 고찰해 보았는가?
시강관 鄭彦浩: 어제 館中이 모여 의논할 때 모두들 왕안석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루 여러 글을 고찰해 보아도 별로 지적하여 말한 것이 없었으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고찰하겠습니다. 하였다.⁹⁵⁾

이는 중종이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것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수동적인 방법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종 21(1526)에도 그는 「大學衍義補」를 계속해서 읽었다. 동년 2월 12일에 조강에서 「大學衍義補」를 읽고 시강관 金鏐와 흥년구제책을 논하였으며,⁹⁶⁾ 2월 14일에는 검토관 宋麟壽, 영사 權鈞 등과 大學衍義補 재난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⁹⁷⁾ 6월 2일에는 시강관 姜顯과 ‘賓禮로 邦國의 제후들과 친한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景明君이 죽은지 7일도 되지 않았는데 세자가 계속해서 서연에 나간 것과 중종이 경명군이 사망한 날 경연에 나간 것 등을 지적한바 중종은 갑자기

94)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1月 22(丁丑) 卷55. 冊16. p.470.
95)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1月 29(甲申) 卷55. 冊16. p.473.
96)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2月 12(乙丑) 卷56. 冊16. p.497.
97)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2月 14(丁卯) 卷56. 冊16. p.498.

더위 병으로 죽은 지 알지 못했고 조강이 끝난 뒤에 들었다는 것이다. 오늘은 3일간의 조정의 업무를 정지한 것도 끝났고, 여러 날 조강을 하지 못해서 경연에 나온 것이라 하였다.⁹⁸⁾ 이러한 사실과 8월 25일 조강에서 책을 읽고 지평 趙宗敬, 정언 沈光彦은 중종이 왕자와 부마를 대동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날 활쏘는 것을 관람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중종은 놀라 사형집행을 생각지 못하고 우연히 행한 것이라 하였다.⁹⁹⁾ 그 후 9월 21일에는 시강관 박우등과 독서를 하고 악기점 검과 사관이 임금 옆에 앉는 문제 등에 논의하였으며, 12월 20일에도 육조 당상관의 출근여부를 보고하는 書啓 건으로 시강관 朴祐와 논의하였다. 중종 22(1527)에는 1월 4일부터 영사 심정, 이유청, 정광필, 張順孫, 지사 李荇, 李沆, 洪淑, 특진관 沈貞, 韓亨允, 金暉, 동지사 허평, 김극필, 참찬관 柳灌, 시독관 沈義欽, 黃恬 등과 계속해서 「大學衍義補」를 읽었다. 중종 23(1528)에는 1월 8일부터 영사 鄭光弼, 沈貞, 특진관 崔漢洪, 李之芳, 韓亨允, 金謹思, 지사 洪숙, 金克楅, 李沆, 동지사 洪彦弼, 許磁, 시독관 金希說, 시강관 朴祐, 鄭彦浩 등과 「大學衍義補」를 읽고 논의하였으며, 5월 28일까지 조강을 하고 더위로 6월 9일까지 쉬었다. 6월 9일에 중종은 ‘내일은 조강에 나가겠다.’하고 10일에 조강한 뒤 7월 14일까지 쉬었다. 14일 아침에 날씨가 서늘하여 내일부터 조강에 나가겠다고 하고 오후에 다시 더위가 계속되니 정지하겠다고 하였다.¹⁰⁰⁾ 그리고 7월 20일에 조강에 나갔다. 하루 독서하고 무더위가 계속되자 다시 정지하고 8월 6일부터 조강에 나갔다. 23년에는 독서회수가 44회로 조사된 바 이는 거의 책과 멀리했다는 근거가 된다. 중종 24년(1529)에는 1월 9일부터 경연을 시작하였다. 동년 5월 25일 조강에서 대사간 魚得江과 領事 張順孫, 동지사 曹繼商 등은 경연에서 문장의 구두와 글자풀이만 할 게 아니라 성현들의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항상 토론하고 옛일을 본받아 지금 실천해야한다는 것과 강독할 때 구결을 붙여 읽는 문제 등을 논하였으며, 또한 어득강은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책이 없어 독서하지 못하거나 책을 사더라도 「大學」이나 「中庸」 같은 책은 常綿布 3~4필을 주어야 사므로, 값이

98)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6月 2(癸丑) 卷57. 冊16. p.513.

99) 朝鮮王朝實錄. 中宗 21年 8月 25(丙子) 卷57. 冊16. p.526.

100) 朝鮮王朝實錄. 中宗 23年 7月 14(癸未) 卷62. 冊17. p.9.

비싸서 못 사게 되니 국가에서 책 가격을 정액제로 하여 감독하는 관리를 두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니 서점을 설립하자는 건의를 하였다.¹⁰¹⁾ 이는 중종의 습관화된 독서 방법을 지적하고 또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11월 1일에는 중종이 선정전에서 유생들에게 강의하였다. 강의 후에 대학의 내용으로 洪彦弼과 尹倬에게 토론하도록 했으며, 李荇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취해졌다. 그 가운데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에 대한 평가도 나와 경연에서의 감독여부도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홍언필: (진략)眞西山의 「大學衍義」에는 역대 제왕의 일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귀감이 되니, 마땅히 進講해야 할 책입니다. 丘濬의 「大學衍義補」은 의논이 純正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진강한 지는 오래입니다. 卷帙이 매우 많으므로 쉽게 진강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혼자 열람하기에는 마땅하나 진강하기에는 부적합하니, 「대학연의」를 가지고 진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정: 언필의 말은 바로 홍문관의 뜻입니다. 大學衍義補은 의논이 광대하고 문장이 자세합니다만 程子나 朱子가 본다면, 취하는 말이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 鄭光弼이 經筵에서 이 책으로 바꾸어 진강하자고 하였는데 ‘옛일의 연원을 널리 알 수 있으므로 群臣을 접대할 때에 이 책으로 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은 이 책은 支離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와 작게는 세세한 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폐할 수 없습니다.

이행: 大學衍義補은 夕講에 하면 안 되고 조강에 해야 합니다. 석강 때에는 張數를 배로 하여 한 번 훑어보는 식으로 진강해야 합니다.

중종: 이미 진강을 시작했으니 중간에 폐지할 수 없다. 마땅히 장수를 배로 해서 한 번 죽 진강하여야 한다.¹⁰²⁾

위의 토론 내용은 중종이 분량이 많아 지루하니까 빠른 시일에 훑어보고 마치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독서 의도를 시강관 沈彦明이 지적하였다. “학문의 공효는 반드시 문자 사이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학문의 깊은 뜻을 玩味하여 무궁한 의리의 뜻을 마음속으로 묵묵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101) 朝鮮王朝實錄, 中宗 24年 5月 25(己未) 卷65. 冊17. p.123.

102) 朝鮮王朝實錄, 中宗 24年 11月 1(癸巳) 卷66. 冊17. p.166.

일이 잘 응회 관통되어 마치 破竹之勢와 같아서 막혀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써 학문을 닦아 나아가는 공효는 마땅히 조용한 마음으로 스스로 터득해야지 억지로 서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경연에서 進講할 때에 張數를 배로 늘어 한 편을 진강하도록 진교하신 것은 바로 속히 마치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의리를 탐구하는 방도에 방해가 되며, 경연을 여는 본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¹⁰³⁾하고 속독으로 해결하려는 중종의 독서방법을 비판한 것이다. 중종 25년(1530)에는 1월 5일부터 조강에 참여하였다. 동 9일에는 시독관 南世健과 독서한 후 남세건이 조종 때 金鉤와 金末은 성리학에 정통했고, 柳崇祖는 경학과 성리학에 정통한 인물이므로 추대하면 학교가 부흥될 것이라 하자 중종이 대사성으로 임명하여 성과가 있으면 동지사로 승급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하였다.¹⁰⁴⁾ 4월 26일에는 陣書 강습과 사가독서자 선발 건 등을 논의하였으며, 5월 12일에는 시강관 黃憲 과 동지사 윤은보 등이 ‘황폐한 지역을 實하게 하기 위해 백성을 移住시킨다.’는 부분에서 백성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논하였다.¹⁰⁵⁾ 중종 26(1531), 중종 27(1532), 중종 28(1533), 38년까지 「大學衍義補」를 조강에서 읽었다. 중종 28년의 경우 4월 13일에 처음으로 조강에 참여하여 검토관 關수담, 영사 정광필, 지사 김안로 등과 독서당에 관한 일 등을 논의하였으며, 「大學」 10권을 가지고 오도록 했다. 6월 14일에는 조강을 마친 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상황에 따라 경연 실시여부를 알리도록 하였다.¹⁰⁶⁾ 결국 다음 날 부터 경연을 쉬고 7월 13일에야 날씨가 시원하다하여 14일부터 열라고 하였다. 7월 14일에는 대사헌 심언광, 정언 崔輔漢, 정광필, 권예 등과 사치와 탐오에 대해서 논하였다. 9월 24일에는 영사 한효원, 동지사 심언경 등과 「大學衍義補」를 읽고 법집행의 융통성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논하였고,¹⁰⁷⁾ 11월 5일에는 대사간 丁玉亨 등과 「大學衍義補」를 읽고 그 내용 중 ‘사면(赦免)을

103) 朝鮮王朝實錄. 中宗 24年 11月 5(丁酉) 卷66. 冊17. p.167.

104) 朝鮮王朝實錄. 中宗 25年 1月 9(庚子) 卷67. 冊17. p.180.

105) 朝鮮王朝實錄. 中宗 25年 5月 12(辛丑) 卷68. 冊17. p.219.

106)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6月 14(乙酉) 卷75. 冊17. p.438.

107)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9月 24(癸亥) 卷76. 冊17. p.472.

자주 내리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중종은 사면의 신중성을 얘기하였다.¹⁰⁸⁾ 중종 29년(1534)에는 1월 11일에 조강을 실시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영사 한효원 등과 「大學衍義補」를 강독하고 중국 사람을 석방하여 보내준 일에 대해 논의 하였다. 중종 30년(1535)에는 영사 김근사, 김안로, 참찬관, 특진관 李思鈞, 지사 沈彦慶 등과 1월 19일에 경연을 시작하였으며, 중종 31년(1536)에는 1월 11일부터 경연을 시작하였다. 동년 4월 3일에는 중종이 예년과 같이 경연을 잘 열지 않자 시독관 김광진이 다음과 같이 건의한 내용에 중종이 답하고 있다.

“經筵에서 뜻을 강론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비록 聖學에 도움이 없을듯하지만 책을 펴놓고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은 도움 되는 바가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을 인견하여 時政의 잘잘못과 민간의 이해에 대해 강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 조에서는 조강·주강·석강을 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夜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사를 처리하는 여가에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하는 일에 대해 조금도 간격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관이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하며, 신하들을 인견하여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에 대해 강론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근래 연이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연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지금 또 夏享大祭가 있어 致齋 때문에 경연을 열 수가 없다.” 하였다. 광진이 아뢰기를, “근래 오래도록 경연을 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신만이 온당치 못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館中과 밖의 의논도 다 그렇게 여깁니다. 지난 병술년(중종 21, 1526) 신이 翰林으로 있을 때 보니 하루에 세 번 경연에 나아갔고 또 야대까지 하였는데, 근래는 경연이나 야대를 모두 하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대저 경연에 나아가는 것이 성학에 특별한 도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 사람이 ‘학문은 계속하여야 덕화가 밝게 빛난다.’ 하였으니 하루라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이는 덕을 빛내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욱 유념하소서.”¹⁰⁹⁾

그러나 중종은 그 해에 조강에 거의 참석치 않았다. 32년에도 1월 19일에 조강을 실시한 후 거의 조강을 열지 않았다. 중종 33년(1538)에는 1월 5일에 조강을 열어 시독관 이몽필, 영사 김극성 특진관 이귀령 등과 군비와 인재등용에 대해서

108)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11月 5(癸卯) 卷76. 冊17. p.480.

실록의 번역본에는 서경으로 번역되었는데 ‘上因講書’에서 ‘서’를 ‘서경’으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109)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4月 3(丁亥) 卷81. 冊17. p.644.

논의하였다. 1월 21일에는 시강관 李彦迪과 「大學衍義補」를 읽고 그 내용 중에 ‘君臣上下는 당연히 정성된 마음으로 서로 감동시켜야 하며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두고서 거짓을 품고 모략을 쌓아 서로 대우한다면 君臣간에 끝맺음이 좋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임금이 살피고 유념해야 할 것과 사람을 기용할 때의 유의 점등을 설명하고 세자가 서연에서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지적하였다.¹¹⁰⁾ 10월 3일에는 세자에게 「大學衍義」가 경사의 글을 모두 수집한 것으로 정치의 방도를 강구하여 밝힌 점에 있어서는 이 책보다 나은 것이 없다하여 석강이나 야대에 강론하고, 강론하면서 의논이 복잡하면 세자에게도 복잡하니 적절한 건만을 인용하여 강론할 것을 주문하였다.¹¹¹⁾ 그러나 종종 자신은 독서에서 점차적으로 거리가 멀어져갔다. 종종 34(1539)에는 1월 20일부터 조강을 열어 특진관 尹熙平, 참찬관 元繼蔡 등과 책의 내용 중에서 陣法에 대해서 논하고, 대사헌 황헌, 대사간 신광환 등과 기강확립에 대해 논의 하였다.¹¹²⁾ 2월 14일 조강 후 2월 21일까지 정지했던 것이 미안했던지 2월 22일부터 조강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2월 22일에 참찬관 崔輔漢과 함께 시경에 나온 <何草不黃>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가의 흥망이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설명을 가하였다.¹¹³⁾ 8월 6일에는 조강 후에 사간 權應挺, 시독관 任說 등과 과거 시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라는 내용으로 논의했으며, 10월 7일 조강에서는 대사헌 尙震의 건의로 옥사를 처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책, 송 桂萬榮이 저술하고 명대에 吳訥이 증보한 「棠陰比事」를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했다.¹¹⁴⁾ 종종 35(1540)년에는 1월 20일에 계속해서 「大學衍義補」로 집의 洪暹 등과 강독하였다.¹¹⁵⁾ 1월 30일까지 조강에서 독서하고 2개월 이상 쉬었다가 4월 5일에야 조강을 시작하였다. 4월 11일에는 시독관 李潤慶이 경연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종종은 사고가

110) 朝鮮王朝實錄. 中宗 33年 1月 21(丙申) 卷86. 冊18. p.159.

111) 朝鮮王朝實錄. 中宗 33年 10月 3(癸卯) 卷88. 冊18. p.218.

112)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1月 20(己丑) 卷89. 冊18. p.242.

113)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2月 22(辛酉) 卷89. 冊18. p.254.

114) 朝鮮王朝實錄. 中宗 34年 10月 7(辛未) 卷92. 冊18. p.340.

115) 朝鮮王朝實錄. 中宗 35年 1月 20(癸丑) 卷92. 冊18. p.374.

있따라 일어나 날마다 할 수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¹¹⁶⁾ 그러나 그 이후에 2회 5월에 2회, 6월 2회, 7월은 한 번도 독서하는 일이 없었고, 8월 2회 9월 1회 10월 이후 3회에 그쳤다.

중종 36(1541)년에는 1월 16일부터 조강을 하였다. 11월 8일에는 참찬관 李浚慶이 조강을 자주 하지 않으니 주장에도 조강의 관례대로 시종이나 대간들이 참석하도록 건의하자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날 주장이나 석강에도 특진관을 감하지 말고 참석하도록 했다.¹¹⁷⁾ 11월 25일에는 중종이 경학에 관한 서적인 소학 을 읽고 싶어했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예조 판서 김안국, 좌찬서 유관, 우찬성 양연, 좌참찬 권벌, 병조 판서 이기, 우참찬 이언적이 의논드리기를,

“조강이나 주장, 석강에 史學을 함께 진강하였는데 사학은 과연 聖經賢傳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經學을 講하시고 싶다는 상의 하교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지금 진강하고 있는 역사책을 마친 다음 차례로 경서를 진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小學」은 初學의 책이므로 경연에서 진강하지 않더라도 한가할 때 가끔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¹¹⁸⁾

이는 조광조의 후유증으로 「小學」을 멀리했던 당시의 일로 보면 경연관들이 소학독서를 경연에서 실시한 것을 합당치 않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중종 37(1542)년에는 1월 20일에 시작되었다. 중종이 조강에서 「大學衍義補」만 가지고 독서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 9월 28일에는 검토관 洪暘이 진강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마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래 晝講과 夕講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朝講은 위에서 드물게 나아가시기 때문에 「大學衍義補」를 진강한 지가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강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쉬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聖學을 제때에 맞추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大學衍義補」는 강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 안

116) 朝鮮王朝實錄. 中宗 35年 4月 11(壬申) 卷93. 冊18. p.381.

117) 朝鮮王朝實錄. 中宗 36年 11月 8(辛未) 卷96. 冊18. p.511.

118) 朝鮮王朝實錄. 中宗 36年 11月 25(丁未) 卷96. 冊18. p.525.

남았습니다. 지금 진강하는 1권 다음에는 한 권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자주 조강에 나아가시면 1개월 이내에 강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조강에는 대신과 대간이 모두 입시하기 때문에 時政의 득실과 민간의 疾苦를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하니, 상이 일렀다.“대저 조강과 석강을 격일제로 해 왔었는데 「大學衍義補」가 남은 권질이 많지 않다면 자주 조강에 나아가야 하겠다.”¹¹⁹⁾

분량이 얼마 남지 않자 尹元衡에게 「大學衍義補」가 1권만 남았으니 끝마친 뒤에는 경서를 읽고 싶으니 영사와 상의하라 했다. 그 얘기를 들은 대신들은 참으로 기뻐하였다. 그리고 중종은 10월 2일에는 조강에도 주장에도 모두 「大學衍義補」를 진강하게 하였다. 너무 오랜 시일이 걸렸으므로 속히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주장에 읽고 있던 「通鑑綱目」을 중단하고 「大學衍義補」를 진강하였다.¹²⁰⁾ 중종 38년(1543)에는 1월 4일에 조강을 실시하였다. 「大學衍義補」를 마친 중종은 집권 초기에 읽었던 「易經」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5월 28일에는 영사 홍언필과 「易經」의 이치를 논하였다. 중종 39년(1544)에는 1월 26일에야 조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과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모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格物·致知·誠意·正心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으며, 장유유서인 질서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향당에서는 나이순, 국학에서는 승급과 입학 순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¹²¹⁾ 4월 7일에는 시독관 李英賢 등이 기묘사화로 인해 학생들이 성리학을 싫어하는 풍습이 있으므로 조광조의 사면에 관심을 갖자는 등의 논의를 하였으며, 8월 23일에는 감기증세 등으로 조강참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장기간 차가운 것을 삼가하고 조리하겠다 하였다.¹²²⁾ 그 뒤 9월 14일에는 지사 李芑, 집의 한두, 영사 尹仁鏡 등과 가덕도에 성 쌓는 것, 경상도의 태풍피해로 인한 조세감면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29일에 정언 趙光玉, 영사 홍언필, 대사헌 정순봉, 지사 성세창 등과 조강한 후 조강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다. 당시 마지막으로 중종과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 및 대간들은 영사 尹殷輔, 홍언필,

119)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9月 28(乙亥) 卷99. 冊18. p.623.

120)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0月 2(戊寅) 卷99. 冊18. p.623.

121)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01月 26(乙丑) 卷101. 冊19. p.37.

122) 朝鮮王朝實錄. 中宗 39年 08月 23(己丑) 卷104. 冊19. p.129.

윤인경, 특진관 任權, 姜顯, 申瑛, 지사 盛世昌, 李芑, 동지사 柳仁淑, 참찬관 鄭大年, 宋世珩, 시독관 李英賢, 검토관 李樞, 李湛, 尹玉, 장령 韓岬, 白仁英, 정언 金鎧, 趙光玉, 사간 許伯琦, 慶渾, 헌납 李首慶, 대사헌 鄭順朋, 閔齊仁, 李滄, 林百齡 등이다.

결과적으로 중종은 조강에서 38년 2개월 동안 독서한 자료는 「尙書」, 「春秋」, 「詩經」, 「大學」, 「中庸」, 「易經」, 「綱目」, 「禮記」, 「大學衍義」, 「續綱目」, 「大學衍義補」 등 10종에 지나지 않는다.

3.2 晝講

주강은 중종 1년(1506) 9월 26일부터 「綱目」으로 시작하였다. 1년 11월 15일 참찬관 李胤과 검토관 金乃文이 주장에서 “근일 자주 조강을 정지하시므로 대신과 대간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청하건대 주장 때 대간과 대신으로 하여금 侍講하게 하소서.”¹²³⁾ 원칙적으로 조강에는 대간과 대신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중종이 조강을 잘 열지 않아 대간과 대신들도 쉬는 날이 많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조강에 참석치 못하면 주장이라도 대간들이 참여하여 시강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중종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합의 결과 주장 때는 대간과 대신이 참여한 적이 없었으니 곤란하고, 만약 조강을 오래도록 쉬었으면 주장에서라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주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자 중종은 3, 4일 후면 조강에 참여한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¹²⁴⁾ 「綱目」에 참여한 경연관은 검토관 金寬, 金乃文, 李思鈞, 安處誠 시강관 李荇, 崔淑生, 金克幅, 成夢井, 시독관 金綴文, 金安國, 金世弼, 李自華 참찬관 李胤, 洪景舟 등이다. 중종2년(1507) 2월 13일에는 강목의 내용중 漢高祖가 ‘내가 韓信만 못하다.’는 등의 내용에서 검토관 안처성의 설명이 있었다.¹²⁵⁾ 11월 22일에는 시독관 金綴文과 「綱目」 <武帝紀>의, ‘급암이 법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는 대목으로 토론하였으며, 3년(1508)에는 시독관 李自華, 安處誠, 柳雲, 시강관 崔淑生, 金綴文 등과 주로 강독

123)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11月 15(庚寅) 卷01. 冊14. p.96.

124)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11月 16(辛卯) 卷01. 冊14. p.96.

125)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2月 13(丁亥) 卷 2. 冊14. p.125.

하였으며, 중종 4년(1509)에는 참찬관 성몽정, 이세인, 강경서, 검토회 김영, 金正國, 시강관 金寬, 安彭壽, 金世弼 등과 책을 읽고 논의하였다. 중종 5년(1510) 1월 5일에는 설경 황여현이 성종조의 야대에 육조 참의도 참여한 적이 있으니 중종의 경연에 경연관이 아닌 외관이라도 학문이 깊은 자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중종의 승낙을 받아냈다.¹²⁶⁾ 1월 28일에는 「綱目」을 읽으면서 ‘魏主 睿가 荒淫無度하였다.’는 내용에 이르러 시강관 이항, 설경 황여현 등과 토론하는 중 황여현이 중종의 독서행태를 의심하였다. 문종의 경우는 혼자 책을 보면서 모르는 곳이 있으면 표시를 하였다가 다음 날 질문도 하곤 했다는 예를 들면서 중종은 경연에 잘 나오기는 하나 大內로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¹²⁷⁾ 중종이 경연에 나와도 질문도 없고 책에는 읽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종이 그 질문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월 3일에는 더위로 인해 주장·석강·문신 전경 전강 등을 모두 중단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에 시독관 홍언필 등과 강독을 시작하였다. 쉬는 날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중종이 三時(조, 주, 석강)에 독서량을 2배로 늘렸다. 독서량이 과다함을 보고 홍언필은 정사도 보살펴야 되는데 많은 양의 독서를 하면 고루 다 읽지 못할 것이니 혼자 편히 쉴 때 열심히 독서하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¹²⁸⁾ 동년 10월 1일부터는 주장에서 「中庸」과 「大學」을 읽기 시작하였다. 시독관 서후가 「中庸」과 「大學」은 성현의 마음을 전수한 것이므로 정통한 사람에게 진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의 경우 「周易」과 「性理大典」을 진강할 때에는 항상 金應箕가 담당하였고, 당시 「中庸」과 「大學」도 俞鎭과 김응기가 담당했다면 지금도 김응기와 柳崇祖가 시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하여 추천하기도 하였다.¹²⁹⁾ 10월 18일에는 중종이 감기증세가 있다고 해서 주장과 석강을 모두 정지하였다. 5년의 주장에 참석한 경연관은 참찬관 李自堅, 李世仁, 典經 鄭士龍,

126)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月 5(壬戌) 卷10. 冊14. p.401.
127)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月 28(乙酉) 卷10. 冊14. p.408.
128)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9月 3(丙辰) 卷12. 冊14. p.460.
129) 朝鮮王朝實錄. 中宗 5年 10月 1(甲申) 卷12. 冊14. p.466.

시강관 金寬, 金希壽, 시독관 李沆, 金淨, 홍언필, 김굉, 설경 黃汝獻, 검토회관 이자, 권벌, 說經 柳墩 등이다. 6년(1511) 4월 18일에는 검토회관 孔瑞麟이 유생 趙光祖의 천거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동년 9월 10일에는 綱目 을 강하다가 시강관 李自華가 ‘마음을 1천 이량에 다한다.’는 말에서 중중이 흉년이라 농사짓는 현장에 가지 않음을 논하였다. 중중 6년에 주장에 참여한 경연관은 검토회관 孔瑞麟, 黃汝獻, 시강관 李自華 등이다. 7년(1512) 4월 11일에는 부제학 김세필과 「綱目」 <魏文帝紀>편을 읽고 논하였으며, 윤 5월 3일 주장에는 시독관 朴祥과 같이 역시 綱目 을 읽었다. 당시 조강에는 「周易」, 석강에는 宋鑑 이 독서자료였다. 중중 8년(1513)에도 주장에서 「綱目」을 계속해서 읽었으며, 9년(1514)에 와서 1월 6일에 시독관 소세양, 설경 민수원, 기사관 金匡復, 金公藝 등과 綱目 을 읽고 유자광의 농사에 대해서 논하였다. 1월 25일에는 시강관 崔命昌과 책을 읽었으며, 1월 27일에는 대사헌 成世純이 사망하여 주장과 석강을 정지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주강을 재개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綱目」의 ‘星變이 있자 점치는 자가 이르기를 ‘君臣이 모두 재앙을 당할 것이니, 사람을 죽여서 예방하소서.’ 하였다.’고 한 부분에서 검토회관 魚泳濬, 金安世 등과 토론을 벌였다.¹³⁰⁾ 2월 2일에는 허굉과 글을 읽고 ‘관부의 청사가 낮고 누추하였다.’는 부분으로 토의하면서 조강 때 송일의 강론을 비판하기도 하였다.¹³¹⁾ 2월 8일에는 시강관 洪彦弼과, 2월 21일에는 시강관 李彦浩, 사경 閔壽元, 참찬관 方有寧 등과 綱目」의 ‘康澄이 上疏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 다섯 가지와 깊이 두려워할 것 여섯 가지를 논하였다.’는 부분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였다. 2월 9일에는 典經 金綵와 「綱目」의 내용 중에 後漢의 임금이 ‘士人들이 자손을 위하여 계획하는 일이 많다 하여 모든 일을 宦官에게 맡겼다.’는 부분으로 토론하였으며,¹³²⁾ 3월 4일에는 ‘총애를 받는 자들이 결탁하여耳目을 가리웠다.’는 대목에서 시강관 尹殷輔, 참찬관 李自華, 典經 金綵 등과 토론하였다. 3월 12일에는 ‘士民의 집이 모두 그 僕隸를 꺼리어 가끔 그들의 舊制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참찬관 朴召榮, 기사관 李弘幹

130)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月 29(癸巳) 卷19. 冊14. p.709.

131)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2月 2(丙申) 卷20. 冊15. p.2.

132)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2月 29(癸亥) 卷20. 冊15. p.7.

등과 토론¹³³⁾ 하였으며, 4월 1일에는 ‘周制의 稅牛皮法은 오직 敵國에 발매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대목에서 시강관 尹殷輔가 양계사람이 소를 팔지 못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동년 4월 20일에는 시강관 허평과 대간의 관리탄핵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5월 20일 주장에서는 시강관 崔命昌이 날씨가 덥다고 해서 일정기간 나가지 않고, 산재라고 해서 아니면 사형집행이라 해서 나가지 않으면 임금의 학문이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게 될까 염려되니 덥거나 추운 날이라 해도 날씨의 상황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재 때도 경연에 가서 독서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¹³⁴⁾ 「綱目」을 완독한 날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9년 4월경으로 보인다. 중종 9년 5월 26일에 주장에서 서경 을 읽고 형벌에 신중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실록에 보인다.¹³⁵⁾ 6월 8, 9일에는 기사관 許洽 등과 토론 한 뒤 8월 1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 갔다. 최명창이 날씨의 상황에 따라 쉬는 날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거의 2개월 이상을 독서하지 못했다. 8월 16일부터 참찬관 李沆, 전경 任權 등과 주장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다시 9월 12일까지 쉬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종의 독서행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의 자세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이 보인다. 중종 9년 10월 25일 대사간 최숙생 12가지 상소의 내용 중에 경연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연은 임금의 지혜를 열어 넓히는 곳이요, 훈고를 암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이 경연에서 모시고 강독한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侍讀하는 관원이 한 번 읽고 나서 한 번 해석하면 殿下께서도 또한 한 번 읽고는 문득 책을 덮어 버릴 뿐, 질문하거나 논의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제왕의 학문하는 것이 아마 이와 같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 하루에 세 번 경연에 나아가신 후에는 九關이 이미 잠겨지고 深宮이 고요하여 夜氣가 맑아지고 모든 사물이 쉬게 되면, 善惡의 幾微가 이에 싹트기 쉬우므로 夜對의 공부가 晝講보다도 간절하니, 임금의 옥체가 비록 괴롭지마는 또한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¹³⁶⁾

133)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3月 12(乙亥) 卷20. 冊15. p.9.

134)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5月 20(壬午) 卷20. 冊15. p.14.

135)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5月 26(戊子) 卷20. 冊15. p.15.

136)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0月 25(甲寅) 卷21. 冊15. p.38.

이는 중종의 독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밤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공첩과 술에 유혹받기 쉬우니 밤에 하는 독서가 낮보다 나으니 밤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권유한 것이다. 9년 12월 10일에는 書經 의 <五子之歌>에 이르러 자신이 색을 경계하는 문구인 ‘內作色荒’을 좌우에 써 붙여서 깊이 생각하고 경계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¹³⁷⁾ 중종 10년(1515) 1월 8일부터는 思政殿 簷下에서 주강을 하자 1월 17일에 승정원에서 날씨가 추우니 장소를 丕顯閣으로 옮기자했으나 중종은 하늘의 재변을 경계하고 근신하는 것인데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여 옮기지 않았다. 중종 10년에는 주로 시강관 李蕝, 金安老, 참찬관 李沆, 설경 任權 등과 자리를 같이 했다. 중종 11년(1516)에도 계속해서 「書經」을 독서자료로 선정하여 시강관 李彦浩, 시독관 蔡忱, 申光漢, 朴守紋, 李清, 사경 任權, 黃孟獻, 전경 이약빙, 寄遵, 설경 寄遵, 참찬관 신상, 김안국, 김안로, 李自華 등과 함께 독서하였다. 동년 2월 23일에는 서경 無逸篇을 시독관 신광한과 함께 했으며, 4월 19일의 주강에서는 사경 黃孟獻이 「性理大全」과 「近思錄」을 읽어야 성현의 사적을 볼 수 있고 心學에 도움이 된다하여 추천하기도 했다.¹³⁸⁾ 4월 24일에는 書經 「周官篇」을 읽으면서 시독관 朴守紋, 참찬관 김안로 등과 삼공의 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6월 7일까지 주강을 하고 8월 23일까지 휴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위 휴강하였다. 동년 9월 20일부터 「大學衍義」를 선정하여 참찬관 金安國, 검토관 조광조 등과 「大學衍義」의 중요성과 중종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였다.¹³⁹⁾ 중종이 듣기만하고 질문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12년(1517)에는 1월 8일에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자료는 「高麗史節要」로 하였다. 당시 경연관은 지사 金詮, 특진관 이점, 이자견, 동지사 李惟清, 시강관 孔瑞麟, 閔壽千, 시독관 柳庸謹, 참찬관 김안국, 韓效元, 尹殷輔, 李彦浩, 李籽, 成世昌, 검토관 조광조, 任權, 奇遵, 전경 安處順, 李希閔, 설경 安處順 등이나 이 해의 독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3월 28일까지 19회에 그쳤으며, 4개월 동안 주강에 나가지 않았으며, 8월 30일에 나갔다가 9월 13일에 실시하였다. 이날

137)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12月 10(戊戌) 卷21. 冊15. p.47.

138)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4月 19(庚午) 卷24. 冊15. p.161.

139)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9月 20(戊戌) 卷26. 冊15. p.215.

은 「高麗史節要」에 이어 조광조와 「小學」을 읽고 그 중요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¹⁴⁰⁾ 중종 13년(1518), 14년(1519)에도 계속해서 주장에서 「小學」을 읽었다. 13년의 경연관은 시강관 조광조, 閔壽千, 金正國, 尹殷弼, 참찬관 申公濟, 金淨, 孔瑞麟, 金湜, 특진관 崔淑生, 沈貞, 申鎰, 尹殷輔, 김도관 奇遵, 權雲, 진경 李認, 사경 권운, 시독관 尹自任, 설경 安處誠 등이었다. 13년 5월 20일에는 조광조가 시강하면서 성색에 대해 강론하고 장순손과 조계상을 파직하도록 하였다.¹⁴¹⁾ 중종 14년 5월 11일에는 「小學」이 거의 끝나가니 「성리대전」을 읽고자 하여 「성리대전」을 진강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설경 安處誠은 성종조에 「성리대전」을 경연관이 아닌 사람도 진강한 예를 들어 金湜이 성균관에 있지만 경연관을 겸하도록 건의하였다.¹⁴²⁾ 그러나 김식은 다음 해인 기묘년에 조광조와 함께 사사되고 말았다. 당시 14년 11월 15일 밤에 경연청에서 병조판서 李長坤, 관중주부사 金詮, 호조판서 高荊山, 花川君 沈貞, 병조 참지 成雲 등이 승지 尹自任, 孔瑞麟, 주서 安珽, 翰林 李構 및 홍문관에 속직하던 應敎 奇遵, 副修撰 沈達源, 우참찬 李耜, 형조판서 金淨, 대사헌 趙光祖, 부제학 金絳, 大司成 金湜, 都承旨 柳仁淑, 左副承旨 朴世燾, 右副承旨 洪彦弼, 同副承旨 朴薰 을 잡아 가두는 사건이 일어났다.¹⁴³⁾ 이는 趙光祖가 훈구세력을 몰아내려고 위훈삭제와, 중종의 도학정치를 주장하여온 결과로 후에 그는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에 유배된 다음 사사되었으며, 나머지 김정, 김식, 기준, 한충 등이 사사되고, 김구, 박세희, 박훈, 홍언필, 이자, 유인숙 등이 유배되었으며, 이들을 두둔한 김안국, 김정국 형제는 파직되었다. 이 사건이 기묘사화이다. 기묘사화로 인해 중종의 독서방향이 달라졌다. 古書의 내용을 읽고 실천하는 성리학을 주장한 趙光祖 일파가 사라지자 「小學」부터 금기시 되었다. 중종 자신도 趙光祖의 몰락과 함께 다음 해인 15년(1520) 초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으며, 거의 다 읽었다는 「小學」을 1년이 더 소요된 것이다.¹⁴⁴⁾ 당시 趙光祖 학파가 몰락하고 경연관으로

140)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9月 13(丙戌) 卷29. 冊15. p.329.
 141)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5月 20(戊午) 卷33. 冊15. p.441.
 142)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5月 11(癸卯) 卷36. 冊15. p.536.
 143)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11月 15(乙巳) 卷37. 冊15. p.578.

발탁된 이들은 시독관 蘇世讓, 검토관 李芑, 시강관 任樞, 鄭士龍, 徐厚, 참찬관 李蘋, 전경 李海, 특진관 尹熙平, 고흥산, 전경 李海 등이었다. 어렵게 「小學」을 완독한 중종은 「小學」 다음으로 읽겠다던 「성리대전」을 읽지 않고 「高麗史節要」로 바꾸었다. 그리고 10월 18일 시강관 任樞와 함께 강독하였다. 16년, 17년, 18년(1523)에도 「高麗史節要」를 강독하면서 경연관 지사 洪淑, 시강관 任樞, 鄭士龍, 表憑, 蘇世良, 金銛, 尹止衡, 蔡紹權, 특진관 허굉, 方有寧, 李繼孟, 韓效元, 成世貞, 安潤德, 崔命昌, 韓亨允, 참찬관 崔世節, 徐厚, 검토관 沈思遜, 權輓, 시독관 이환 등이 담당하였다. 19년(1524)에는 주강의 자료로 「大學衍義」를 선정하였다. 「大學衍義」에 참여한 경연관은 7월 28일에 같이한 시강관 柳溥와 8월 24일에 시강관 黃孝獻, 참찬관 閔壽千 등이다. 중종 20년(1525)에도 「大學衍義」를 독서자료로 삼아 읽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자 8월 20일에 홍문관에서 조강에 진강하는 「大學衍義補」는 권질이 많으므로 조강과 주강에 읽고 야대는 「春秋」를 읽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종은 「綱目」을 본지 오래되었으니 주강과 야대에 「綱目」을 읽는다고 하였다.¹⁴⁵⁾ 「大學衍義」는 9월 29일까지 읽었으며, 당시 경연관으로는 시강관 沈思遜, 鄭應麟, 특진관 趙玉崐 등이었다. 그 후 주강자료로 「綱目」을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주강에 참여한 경연관은 특진관 安潤德, 沈順徑, 검토관 黃恬 등이었다. 21년(1526)에도 주강에서 계속해서 「綱目」을 읽었으며, 특진관 尹熙平, 참찬관 정응린, 柳溥, 시강관 金鏐, 沈彦慶, 李龜齡, 검토관 任柄, 宋麟壽 등과 같이하였다. 그 후 22, 23, 24년(1529)까지 주강을 하지 않았다. 25년 5월 11일에 시강관 조종경과 1, 2회 주강을 하였으나, 26, 35년까지 거의 하지 않았다. 중종 36년(1541) 3월 18일에는 시강관 李浚慶, 특진관 鄭順朋 등과 함께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육의 병폐와 인륜이 허물어지고 있는 당시의 세태를 논하였으며, 37년(1542) 8월 19일에는 시강관 柳辰叟과 함께 했으며, 당시 읽고 있는 책은 여전히 「綱目」이었다. 10월 2일에는

144) 小學 은 趙光祖가 정학으로 삼았는데 조광조의 몰락으로 小學 을 읽는 자가 없어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 보았다. 당시 언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할 계획도 무산되자 명종즉위년에 명종도 경연에서 독서하도록 하고 번역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145)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20(丁未) 卷55. 冊16. p.447.

조강에 읽고 있는 「大學衍義補」를 완독하지 못하자 읽고 있는 「綱目」을 중지하고 조강, 주장에 모두 「大學衍義補」로 강독하도록 하였다.¹⁴⁶⁾ 38년(1543)에는 검토했던 金麟厚, 특진관 李彦迪 등이 기묘사화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며, 범죄도 증가하여 인륜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소학이나 향약에 관련된 책도 폐기하고 읽지 않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하였다.¹⁴⁷⁾ 39년(1544)에는 10월 16일을 마지막으로 주장을 끝마쳤다.

요컨대 중종의 주장에서는 집권 초에 「綱目」을 선정하여 9년 4월 1일까지 읽었으며, 9년 5월 26일에는 조강에서 읽었던 「尙書」를, 11년 9월 20일부터는 「大學衍義」, 12년 1월 12일부터는 「高麗史節要」, 12년 9월에는 「小學」을 15년 4월 5일까지 읽었으며, 15년 10월 18일부터는 다시 「高麗史節要」를 17년 10월 10일까지 읽고, 다시 19년 8월 24일 「大學衍義」를, 21년 2월 7일에는 집권 초기에 읽었던 「綱目」을 읽다가 37년까지도 완독하지 못하고 「大學衍義補」로 바꾸어 독서하였다.

3.3 夕講 및 夜對

석강에서는 중종 1년에 「大學衍義」, 4년에는 「論語」, 5년 「孟子」, 6년부터 「宋鑑」을 9년 3월까지 읽었으며, 9년 4월부터는 「高麗史」를 읽었는데 11년 3월 28일 석강에서는 「高麗史」 <명종기>를 읽으면서 신씨폐출로 인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대목에서 신씨생각으로 한숨쉬며, 문장의 구두도 분간하지 못했다고 한다.¹⁴⁸⁾ 11년 10월 19일에는 조광조가 석강에서 성리학에 힘쓸 것을 주장했으며, 11년 11월에는 초년에 읽었던 「大學衍義」를 12년 8월 19일까지 읽고, 12년 8월 20일부터 「大學」을, 13년부터 다시 「論語」를 읽기 시작하였다. 14년 4월 19일에는 조광조가 석강에 참찬관으로 참여하여 중종에게 충고를 가한다. 「近思錄」과 「小學」을 강독한 지가 이미 2-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끝맺지 못했다는 것과

146)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0月 2(戊寅) 卷99. 冊18. p.623.

147) 朝鮮王朝實錄. 中宗 38年 7月 22(乙丑) 卷101. 冊19. p.6.

148)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3月 28(己酉) 卷24. 冊15. p.153.

늘 마음에 성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대부를 만나는 일이 적어진 것을 보면 상계서 道를 구하는 정성이 조금 해이하여진 것, 그리고 근래의 경연이 전일만 못하니 장차 경연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金湜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선택에 적합한 사람인데도 전에 出身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 등을 직언한 바 있다.¹⁴⁹⁾ 15년 4월 10일에도 「論語」를 강독한 것으로 보면 3년 가까이 「論語」만 읽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20년에는 「春秋」, 21년 11월 「書經」, 23년에는 「禮記」, 34년에는 「綱目」, 38년에는 「易經」을 마지막으로 하였다. 38년 11월 3일에는 具壽聃, 愼居寬 등과 「易經」 <小畜卦>를 강독하였다. 중종이 마지막으로 석강에 참여한 날은 39년 10월 21일이었다.

야대의 과목으로는 집권시부터 「大學衍義」를 선정하여 읽었으며, 4년 2월 29일에는 「論語」를, 11월에는 「孟子」, 8년 11월 「宋鑑」, 11년 1월부터는 「高麗史節要」를 읽었으며, 11년 6월 2일에 야대에서 윤세호, 유관, 조광조등과 「高麗史節要」를 읽고 토론하면서 조광조는 현재 읽고 있는 「高麗史節要」가 적절하지 않으니 「中庸」·「大學」·「性理大全」·「近思錄」과 같은 책을 읽도록 추천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자신의 독서방향이 이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종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옛날의 정치와 흥망을 비추어 볼 수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의 토론내용을 보면,

趙光祖: 지금 進講하는 「高麗史節要」은 夜對에 적절하지 않으며, 「中庸」·「大學」·「性理大全」·「近思錄」과 같은 책들이 보시기에 적당합니다. 야대의 淸明한 때에 이런 글을 강론하면 聖學이 매우 高明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文宗께서 일찍이 「近思錄」을 보고부터 얻은 것이 많았다. 하셨는데, 「國朝寶鑑」을 修撰한 자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써 넣었습니다. 더구나 옛사람의 「夜氣」의 맑음은 아침이나 낮과 다르다.는 야기의 說이 있으니, 반드시 이런 글을 진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中宗: 야대에서 史記를 보면 예전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고 흥하고 망한 자취를 비추어볼 수 있으니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中庸」·「大學」과 아울러 강론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전일 야대에서 승지·

149)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4月 19(壬午) 卷35. 冊15. p.528.

경연관이 「中庸」·「大學」을 강론하였으니, 지금도 「大學」에서 大
文을 뽑아 강론하면 되겠다.¹⁵⁰⁾

중종 11년 9월 12일에도 야대에서 高麗史節要 를 시강관 채침과 같이 읽었으
며, 9월 29일에는 야대에서 참찬관 尹殷輔가 高麗史」 같은 것은 왕 혼자 읽도록
권유하였으며, 시강관 柳溥는 성리학의 기본을 잊지 않도록 했다. 중종은 역사의
기록이 권면과 징계에 도움이 되므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주장과 아울러 史記
가 해독하기 쉽다고 하자 전경 安處順은 그 성패를 보아 권면과 징계를 삼으려면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파악 하므로 쉬운 책이 아님을 알려주었다.¹⁵¹⁾ 결국 중종
은 경연관들의 권유에 못 이겨 高麗史 를 중단하고 「近思錄」을 택하였다. 11년
10월 7일부터 「近思錄」 첫 장의 표와 서문을 읽었다. 10월 8일에는 검토관 조광
조, 참찬관 김안국, 설경 奇遵, 시독관 韓效元 등이 선왕의 성리학 관심도와 近思
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독서할 때 유의점 등을 논의 하였으며, 이 토론에서
중종은 처음에는 스스로 성리학에 힘쓰겠다고 말한 뒤 다시 성리학을 숭상하기까
지 하겠다고 다짐하였다.¹⁵²⁾ 12년 11월까지 야대에서 近思錄 을 읽은 후 大學」
을 읽었다. 「大學」은 13년 1월 18일에 완독하였으며, 이날 조광조는 「大學」을
읽은 중종에게 이제야 학문의 종지를 아신 것이라 하면서 독서하는 자세를 일러
주기도 하였다. 조광조가 일러준 독서자세를 보면,

“進講한 「大學」이 이제 끝났으니, 성상의 학문은 이미 학문의 宗旨를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한결같지 않아서 방심하고 나태하기 쉬워서
간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글을 보는 데 있어서 풍월이나 읊는 경우에
는 비스듬히 누워서 볼 수도 있고,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서 볼 수도 있지만,
만일 性理學 책을 볼 경우에는 衣冠을 정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서 보아야 합니다.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朝士의 경우 반드시 帽帶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릭[帖裡]은 胡
服에 가까우니 그것을 입고 글을 보아서는 안 되고, 直領같은 것은 곧 深衣이니
그것을 입고 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학문을 하는 자들은 한갓 句讀나

150)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6月 2(壬子) 卷25. 冊15. p.186.
151)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9月 29(丁未) 卷26. 冊15. p.218.
152) 朝鮮王朝實錄. 中宗 11年 10月 8(丙辰) 卷26. 冊15. p.221.

詞藝에 관한 것만을 힘쓰고 大義는 알지 못합니다.(후략)” 그리고 이날 조광조 등이 너무 경연에 열심하시다 보면 건강을 해칠까 염려된다고 하자 중종은 “세 때 경연에 나아가고 또 야대에 나아가는 것은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고 싶은 때가 많기 때문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¹⁵³⁾

독서하는 자세를 다른 책과는 달리 성리학의 경우는 바른 자세와 의관을 갖추고, 구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큰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현 학자들을 빗대서 얘기하였다.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는 말에 ‘경연에 나가는 것은 어진사대부를 만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나간 것이 억지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독서에 흥미를 느꼈다고 보는 견해보다는 경연관들에게 듣기 좋아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종의 경우 거의 야밤에 책을 읽지 않았음이 그 증거이다. 그 후 어떤 책으로 야대에서 강독했는지 알 수 없다. 15년 윤8월 17일에는 시독관 황효현과 論語를 강독했다는 기록과 10월 10일에는 비현각에서 강독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17년에는 「大學衍義」, 20년 8월 20일에는 경연관이 주강과 야대과목으로 「春秋」를 선정해 주었지만 중종은 「綱目」으로 하겠다고 하여 「綱目」으로 결정하였다.¹⁵⁴⁾ 「綱目」으로 결정하자 홍문관에서 영경연사의 뜻으로 「綱目」을 강독하되 윤기신의 書法發明(宋代 尹起莘의 資治通鑑綱目發明을 말함)을 겸해서 읽기를 주문했으며, 또한 그 동안 시강관이 음과 釋音을 한번 읽으면, 임금도 한 번 읽었는데, 이제는 아래에서 두 번 읽고 임금은 읽지 말도록 하였다. 중종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뿌리치지 못하고 書法發明은 요구대로 할 수 있으나 글은 읽지 않을 수 없다하고 단호히 거절하였다.¹⁵⁵⁾ 그러나 사헌부에서는 중종 20년(1525) 11월 18일에 중종이 학문을 좋아하는 군왕이라 칭찬하면서도 경연에서 강관들의 강독하는 방법이나 중종의 독서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講官들은 책을 잡고 章句만 읽어갈 뿐 의리는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하께서는 문장에 임하여 글줄만 보아갈 뿐 변론하는 말씀은 들어보지 못하고, 의심나는 곳은 질문하지 않고, 意趣를 귀결 짓는 일도 없으

153)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18(戊午) 卷31. 冊15. p.391.

154)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20(丁未) 卷55. 冊16. p.447.

155)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8月 27(甲寅) 卷55. 冊16. p.449.

로, 상하가 형편대로 구차하게 격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밤에는 내시와 궁녀들이 줄을 지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동하기도 어렵고 나태한 마음이 들기 쉬운데, 이럴 때 학문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면서, 주야로 열심히 학문하는 임금, 매일 경연에 나와 성현들과 경서를 토론한 성종을 본받도록 한 것이다.¹⁵⁶⁾ 23년(1528) 12월 19일에는 야대에서 검토관 金弘胤 등과 「綱目」을 강론하고 몇 년간 어떤 책으로 토론했는지 기록이 없다. 중종 28년(1533) 11월 16일의 기록에 보면, 중종이 근래 3년 동안 상중이라 오래도록 비현각에서 야대를 못했으므로 오늘은 야대를 하려고 한다고 한 것으로 보면 상당한 기일동안 밤에 독서를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날 밤 중종은 검토관 具壽聃, 사경 李浚慶 등과 함께 조정의 폐단을 논하는 중 책에 관련 된 사항도 포함되었다. 즉, 당시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 이유는 기묘사화 이후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조광조파로 몰려 배척을 당한다는 뜻의 논의였다. 또한 「小學」과 「近思錄」 등류의 책은 금서로 여겨 책을 가지고 다니면 기묘사화의 무리로 치부하기 때문에 찢어서 벽지로 사용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니 큰 폐단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¹⁵⁷⁾ 이들은 이 날 안처겸의 난으로 한 마을이 텅 비게 된 사건을 언급했다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구수담의 경우 형은 具壽福이고 그의 처삼촌은 趙光祖이며, 이준경은 그의 동서가 金胤宗인데 金湜과 함께 죄를 받았으며, 그의 오촌과 육촌인 李延慶, 李若水, 李若水는 모두 기묘년의 사류에 참여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아뢰는 것이라 하여 결국 파직당했다.¹⁵⁸⁾

156)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1月 18(癸酉) 卷55. 冊16. p.469. “今殿下, 臨御經筵, 誠意孜孜, 緝熙光明, 有同古賢, 可謂好學之君. 然講官執經, 讀了章句, 不析義理之分; 殿下臨文, 看過行札, 未聞問辨之語, 疑難不質, 意趣無歸, 上下容容, 苟焉充例. 其對群臣, 尚猶如此, 至於深宮屋漏之中, 蠅蚋蟻渡之地, 宦侍姬妾, 列侍左右, 肅恭之容難常, 而怠惰之念易乘, 當此之時, 不知殿下, 亦復有學問之志, 而乾乾不息乎? 存養之功, 夜爲最甚, 昏冥易忽之際, 尤當致戒謹之力, 此, 夜對之有益於聖學者也. 接待儒臣, 不拘晝夜, 日復一日, 無小間斷, 斂之爲存心, 處己之本; 發之爲應事, 接物之要, 此, 聖學之極功也. 成廟每御經筵, 與侍從, 宰輔, 討論聖經, 商確治道, 未嘗不眷眷乎古今治亂之由; 性命義理之源, 伏願殿下, 取法焉.”

157)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11月 16(甲寅) 卷76. 冊17. p.486.

결과적으로 <表 2>에서 보듯이 중종이 39년 동안 집권하면서 읽은 책이 조강에서 「尙書」, 「春秋」, 「詩經」, 「大學」, 「中庸」, 「易經」, 「綱目」, 「禮記」, 「大學衍義」, 「續綱目」, 大學衍義補 등 10종이며, 주강에서는 「綱目」, 「尙書」, 「大學衍義」, 「高麗史節要」, 「小學」, 「大學衍義補」 등 5종, 석강에서는 「大學衍義」, 「論語」, 「孟子」, 「宋鑑」, 「高麗史節要」, 「論語」, 「春秋」, 「尙書」, 「禮記」, 「綱目」, 「易經」 등 11종, 야대에서는 「大學衍義」, 「論語」, 「孟子」, 「宋鑑」, 「高麗史節要」, 「近思錄」, 「大學」, 「論語」, 「綱目」 등 9종을 읽었다. 중복된 책을 제외하면 「尙書」, 「綱目」, 「大學衍義」, 「春秋」, 「論語」, 「詩經」, 「孟子」, 「大學」, 「中庸」, 「高麗史節要」, 「宋鑑」, 「小學」, 「易經」, 「近思錄」, 「禮記」, 「續綱目」, 「大學衍義補」 등 17종으로 나타났다. 17종의 책을 강독하는데 참여한 경연관 및 특진관은 <表 3>과 같이 총 272명으로 나타났다.(대간은 제외된 숫자임)

<表 2> 中宗이 읽은 冊

朝講期間 및 冊		晝講期間 및 冊		夕講期間 및 冊		夜對期間 및 冊	
1年-3年 8月	尙書	1-	綱目	1-	大學衍義	1-	大學衍義
3.9-	春秋	9.5-	尙書	4-	論語	4.2-	論語
4.9-	詩經	11.9-	大學衍義	5-	孟子	4.11-	孟子
5.10-	大學	12.1-	高麗史節要	6-	宋鑑	8.11-	宋鑑
				8.1	綱目		
	中庸	12.9-	小學	9.4-	高麗史	11.1-	高麗史節要
6.1-	易經	15.10-	高麗史節要	11.11-	大學衍義	12.11-	근사록
9-	綱目	19.8-	大學衍義	13-	論語	12.12-13.1	大學
9.4-	禮記	21.2-	綱目	20-	春秋	15-	論語
12.8-	大學衍義			21-	尙書	17-	大學衍義
13.5	續綱目			23-	禮記	20-	綱目
20-	大學衍義補	37-	大學衍義補	34-	綱目		
38-	易經			38-	易經		

이와 같이 중종의 독서토론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묘사화, 신사무

158) 朝鮮王朝實錄. 中宗 28年 12月 19(丁亥) 卷76. 冊17. p.491.

옥 등으로 鄭光弼, 安瑒, 崔淑生, 李長坤, 金安國, 李籽, 金淨, 金世弼, 柳雲, 文瑾, 權權, 趙光祖, 尹世豪, 金湜 등¹⁵⁹⁾ 80여명 이상의 경연관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3> 讀書討論에 참여한 經筵官 및 特進官

姜景敍, 姜澂, 姜顯, 姜渾, 慶世昌, 高荊山, 孔瑞麟, 具壽聃, 具壽福, 具壽永, 具之愼, 權鈞, 權權, 權福, 權輓, 權應昌, 權纘, 權輒, 權弘, 奇遵, 金漑, 金寬, 金光準, 金光軫, 金磁, 金紉, 金克成, 金克福, 金謹思, 金乃文, 金魯, 金瑒, 金鏐, 金萬鈞, 金半千, 金對, 金錫哲, 金瑄, 金鈺, 金世弼, 金壽童, 金遂性, 金湜, 金安國, 金安老, 金安世, 金瑛, 金應箕, 金麟厚, 金義貞, 金詮, 金淨, 金正國, 金駿孫, 金天宇, 金綴文, 金致雲, 金弘胤, 金希壽, 金希說, 南哀, 南世健, 盧公弼, 羅世纘, 羅淑, 文瑾, 閔祥安, 閔壽元, 閔壽千, 朴槿, 朴光榮, 朴祥, 朴世翁, 朴世熹, 朴召榮, 朴守紋, 朴安性, 朴說, 朴英, 朴祐, 朴元宗, 朴閔卿, 朴以寬, 朴從麟, 朴壕, 朴薰, 潘碩枰, 方有寧, 尙震, 徐厚, 成夢井, 成世純, 成世昌, 成雲, 成允祖, 成希顏, 蘇逢, 蘇世良, 蘇世讓, 孫洙, 孫澍, 孫仲敷, 宋世珩, 宋麟壽, 宋軼, 宋千喜, 宋好義, 愼居寬, 申光漢, 申鏞, 申儼, 申瑛, 申用漑, 辛允武, 申浚, 沈達源, 沈思遜, 沈彥慶, 沈彥光, 沈彥明, 沈連源, 沈義欽, 沈貞, 安瑒, 安潤德, 安處誠, 安處順, 安彭壽, 安漢英, 安玆, 梁淵, 魚泳濬, 劉灌, 柳灌, 柳敬, 柳湄, 柳溥, 柳濱, 柳世麟, 柳洵, 柳順汀, 柳崇祖, 柳沃, 柳庸謹, 柳雲, 柳仁淑, 柳辰全, 柳希渚, 尹金孫, 尹世豪, 尹玉, 尹元衡, 尹殷輔, 尹殷弼, 尹仁鏡, 尹自任, 尹珣, 尹止衡, 尹鉉, 尹希聖, 尹喜孫, 尹希仁, 尹熙平, 元繼蔡, 李季男, 李繼孟, 李龜齡, 李芑, 李湛, 李膺, 李名珪, 李夢弼, 李蘋, 李思鈞, 李成童, 李世英, 李世仁, 李蓀, 李守英, 李若冰, 李彥迪, 李彥浩, 李畬, 李英賢, 李堦, 李元孫, 李惟清, 李胤, 李潤慶, 李認, 李籽, 李自建, 李自堅, 李自華, 李長坤, 李坫, 李挺豪, 李浚慶, 李之芳, 李震, 李濬, 李清, 李樞, 李沆, 李荇, 李孝彥, 李湜, 李希孟, 李希閔, 任權, 任說, 任樞, 林亨秀, 張順孫, 張玉, 田霖, 鄭光世, 鄭光弼, 鄭大年, 鄭萬鍾, 鄭士龍, 鄭順朋, 鄭彥愨, 鄭彥浩, 丁玉亨, 鄭熊, 鄭惟善, 鄭膺, 鄭應麟, 曹繼商, 趙光祖, 趙邦彥, 趙佑, 趙舜, 趙元紀, 蔡無擇, 蔡紹權, 蔡忱, 崔命昌, 崔輔漢, 崔山斗, 崔世節, 崔淑生, 崔重洪, 崔漢洪, 表憑, 河繼先, 韓淑, 韓澍, 韓忠, 韓亨允, 韓效元, 許磁, 許遲, 許輯, 許沆, 許洽, 洪景舟, 洪曇, 洪紱疇, 洪暹, 洪淑, 洪彥弼, 洪春卿, 洪春年, 黃琦, 黃恬, 黃孟獻, 黃士祐, 黃汝獻, 黃憲, 黃孝獻(272명)

159) 金正國. 「思齋集」卷4. 己卯黨籍.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4.1 朝講

조강은 아침에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왕이 어리면 보편적으로 3강 및 야대를 실시하였다. 즉 단종의 경우 12세에 등극하여 조강, 주장, 석강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論語」, 「孟子」, 「中庸」까지 읽었다. 그의 집권기간 총 경연회수는 25회 정도에 그쳤지만 삼강제도의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종도 13세의 어린나이에 등극한 관계로 3강과 야대까지 실시하였다. 조강은 주로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육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조강에서 선정된 책으로 공부한 후 주장, 석강, 야대에서는 복습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중종의 경우는 19세에 등극하여 3강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주장, 석강에서 복습하는 행태가 아니라 각 강별로 별도의 책을 선정하여 강독하고 토론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선왕들과 차이가 있다. 중종이 집권 38년 2개월 동안 조강을 실시한 회수를 연도별로 보면 1년 57회(9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 2년 177회, 3년 137회, 4년 193회, 5년 166회, 6년 166회, 7년 148회, 8년 89회, 9년 121회, 10년 76회, 11년 141회, 12년 97회, 13년 142회, 14년 86회, 15년 112회, 16년 78회, 17년 55회, 18년 37회, 19년 67회, 20년 53회, 21년 52회, 22년 46회, 23년 44회, 24년 31회, 25년 35회, 26년 25회, 27년 37회, 28년 21회, 29년 23회, 30년 26회, 31년 16회, 32년 16회, 33년 25회, 34년 18회, 35년 22회, 36년 21회, 37년 16, 38년 21회, 39년 10회 등으로 총 2,703회이다. 중종 16년부터 급격하게 독서회수가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의 경우는 필자가 기 발표한바 집권 25년 동안 조강을 실시한 회수는 총 3,774회였다. 7년까지 보면 1년 243회, 2년 254, 3년 250회, 4년 237회, 5년 262회, 6년 241회, 7년 225회로 총 1,712회였으며, 중종은 7년까지 1,044회이다. 집권기간 통산해서 조강한 회수를 월별로 보면 1월이 303회, 2월 322회, 3월 224회, 4월 238회, 5월 263회, 6월 113회, 7월 121회, 8월 277회, 9월 229, 10월 258회, 11월 214, 12월 141회로 이 중 1월과 2월에 가장 많은 독서율을 보였으며, 6, 7, 12월에 가장 적은 양의 독서율이 나타났다. 열심히 글을 읽은 흔적은 보이나 성종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表 4> 朝講回数

月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4	19	10	24	57	57
2	24	17	17	13	19	4	16	14	11	19	6	17	177	234
3	22	15	25	14	7	5	1	9	2	19	18	0	137	371
4	25	23	18	19	15	19	0	17	13 (<small>○</small>)19	12	6	7	193	564
5	25	24	13	9	15	4	1	19	16	14	24	2	166	730
6	26	6	12	19	18	12	2	10	12	16	17	16	166	896
7	8	16	9	13	8(<small>○</small>)17	0	15	16	10	24	12	0	148	1044
8	9	5	6	3	10	2	1	15	12	9	17	0	89	1133
9	12	27	11	10	11	5	0	10	8	2	6	19	121	1254
10	0	12	0	0(<small>○</small>)5	12	0	7	17	7	15	1	0	76	1330
11	15	22	7	8	16	4	1	3	12	20	22	11	141	1471
12	11	11	11	14	0	0	4	21	10	2	10	0(<small>○</small>)3	97	1568
13	15	18	14	10	16	5	13	16	12	15	4	4	142	1710
14	6	9	5	13	12	10	9	7	5	3	2	5	86	1796
15	10	11	11	11	8	13	2	8(<small>○</small>)5	8	11	9	5	112	1908
16	12	12	12	2	5	1	4	6	6	6	9	3	78	1986
17	7	11	4	6	6	5	1	4	7	2	2	0	55	2041
18	0	2	4	1(<small>○</small>)3	5	1	2	4	6	5	2	2	37	2078
19	6	3	3	10	8	4	6	8	8	5	4	2	67	2145
20	6	7	2	5	5	2	3	3	3	4	6	7	53	2198
21	3	8	5	3	5	1	7	7	6	3	3	1	52	2250
22	7	5	4	2	0	0	2	9	8	4	5	0	46	2296
23	4	10	4	2	8	1	1	3	2	3(1)	2	3	44	2340
24	6	3	2	3	3	2	0	4	3	2	3	0	31	2371
25	7	6	6	6	5	1	0	0	0	0	0	4	35	2406
26	2	3	1	1	0	3	4	3	1	0	4	3	25	2431
27	9	5	3	7	3	0	3	5	2	0	0	0	37	2468
28	0	0	0	3	1	4	2	4	1	3	3	0	21	2489
29	4	6(3)	2	1	1	0	1	2	2	0	1	0	23	2512
30	2	4	2	2	5	1	3	3	0	3	0	1	26	2538
31	1	1	1	1	2	1	1	2	2	4	0	0	16	2554
32	3	1	1	3	1	0	1	2	1	1	2	0	16	2570
33	5	4	2	1	3	1	3	3	1	2	0	0	25	2595
34	1	4	0	1	1	0	3	4	2	2	0	0	18	2613
35	4	1	0	4	2	1	0	4	2	2	1	1	22	2635
36	1	3	3	2	2	1	0	3	1	1	3	1	21	2656
37	2	0	1	2	3	0	1	4	1	2	0	0	16	2672
38	2	4	2	2	4	0	1	2	1	3	0	0	21	2693
39	1	0	1	4	1	0	0	1	2	0	0	0	10	2703
총회수	303	322	224	238	263	113	121	277	229	258	214	141	2703	2703

4.2 晝講

주강은 낮에 점심을 먹고 경연관들과 책을 선정하여 강독하는 제도이다. 중종의 경우는 조강에 실시한 내용을 복습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책을 선정하여 강독하였다. 그가 주강에 실시한 경연회수는 1년 59회(9월-12월), 2년 82회, 3년 105회, 4년 137회, 5년 62회, 6년 96회, 7년 87회, 8년 60회, 9년 87회, 10년 46회, 11년 85회, 12년 43회, 13년 21회, 14년 12회, 15년 40회, 16년 42회, 17년 55회, 18년 53회, 19년 73회, 20년 41회, 21년 18회, 22년 9회, 23년 6회, 24년 1회, 25년 2회, 26년 2회, 27년 2회, 28년 0회, 29년 1회, 30년 0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5회, 34년 1회, 35년 1회, 36년 2회, 37년 2회, 38년 13회, 39년 3회 등으로 총 1,354회 이상이다. 이의 수치로 보아 중종이 주강에 참여하여 독서한 실적은 좋지 못하다. 중종 21년부터는 급격히 독서회수가 감소되면서 22년부터는 거의 주강에서 독서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표를 통해 보면 24년부터는 1, 2회에 불과할 정도로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권기간 통산해서 주강한 회수를 월별로 보면 1월 199회, 2월 159회, 3월 103회, 4월 117회, 5월 112회, 6월 21회, 7월 8회, 8월 86회, 9월 97회, 10월 151회, 11월 167회, 12월 134회로 이 중 1월과 2월, 11월에 가장 많은 독서율을 보였으며, 6, 7월에 가장 저조한 독서율이 나타났다.

<表 5> 晝講回數

月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2	15	20	22	59	59
2	6월19	7	12	6	0	0	0	4	2	6	6	14	82	141
3	8	12	16	9	6	1	0	5	2	14	15	17	105	246
4	24	15	12	14	10	1	0	9	9월11	3	18	11	137	383
5	12	5	1	4	7	0	0	5	5	9	5	9	62	445
6	15	3	1	15	7	2	0	5	7	10	14	17	96	541
7	12	13	3	9	6월2	0	0	6	9	16	11	0	87	628
8	7	4	4	2	6	0	0	13	5	4	15	0	60	688
9	6	23	10	9	10	2	0	1	6	3	4	13	87	775
10	16	12	0	0월1	3	0	0	0	1	13	0	0	46	821

11	12	14	7	6	12	5	0	1	8	17	0	3	85	906
12	14	4	1	0	0	0	0	1	2	3	5	1윤12	43	949
13	8	2	0	2	4	4	1	0	0	0	0	0	21	970
14	0	0	0	3	4	0	1	1	1	2	0	0	12	982
15	1	1	2	5	4	0	0	2윤5	1	6	9	4	40	1022
16	8	5	8	2	2	0	0	3	3	1	9	1	42	1064
17	6	11	8	4	6	3	0	2	4	5	6	0	55	1119
18	0	1	4	1윤5	5	0	2	4	4	7	16	4	53	1172
19	4	8	4	11	9	0	1	10	9	8	7	2	73	1245
20	5	6	1	5	2	3	0	5	3	3	5	2윤1	41	1286
21	3	6	3	3	2	0	1	0	0	0	0	0	18	1304
22	3	2	2	0	0	0	0	0	0	1	1	0	9	1313
23	2	1	1	0	0	0	0	0	0	0윤1	0	1	6	1319
24	0	0	0	0	0	0	0	0	0	1	0	0	1	1320
25	0	1	0	0	1	0	0	0	0	0	0	0	2	1322
26	1	0	0	0	1	0	0	0	0	0	0	0	2	1324
27	1	0	0	0	1	0	0	0	0	0	0	0	2	1326
28	0	0	0	0	0	0	0	0	0	0	0	0	0	1326
29	1	0윤0	0	0	0	0	0	0	0	0	0	0	1	1327
3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27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1327
32	0	0	0	0	0	0	0	0	0	0	0	0	0	1327
33	2	1	0	0	1	0	0	1	0	0	0	0	5	1332
34	0	0	0	0	0	0	0	0	0	1	0	0	1	1333
35	0	0	0	0	0	0	0	1	0	0	0	0	1	1334
36	0	0	1	0	0	0	0	0	0	1	0	0	2	1336
37	0	0	0	0	0	0	0	1	0	0	1	0	2	1338
38	3	2	2	2	1	0	1	1	1	0	0	0	13	1351
39	0	0	0	0	0	0	0	0	2	1	0	0	3	1354
총회수	199	159	103	117	112	21	8	86	97	151	167	134		1354

4.3 夕講

석강은 경연관들과 해지기전에 책을 읽고 강론하는 자리이다. 그가 석강에서 실시한 경연회수는 1년 54회(9월-12월), 2년 66회, 3년 93회, 4년 125회, 5년 48회, 6년 93회, 7년 80회, 8년 56회, 9년 77회, 10년 55회, 11년 103회, 12년 94회, 13년 123회, 14년 54회, 15년 25회, 16년 20회, 17년 8회, 18년 15회, 19년 45회, 20년 86회, 21년 93회, 22년 66회, 23년 64회, 24년 39회, 25년 37회, 26년

52회, 27년 24회, 28년 26회, 29년 24회, 30년 19회, 31년 28회, 32년 24회, 33년 30회, 34년 25회, 35년 33회, 36년 44회, 37년 36회, 38년 56회, 39년 13회 등으로 총 2,053회 이상이다. 주장보다 많은 독서를 하였다. 6, 7월, 12월에는 날씨관계로 거의 쉬는 날이 많아 독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집권기간 통산해서 석강한 회수를 월별로 보면 1월 257회, 2월 272회, 3월 178회, 4월 187회, 5월 163회, 6월 33회, 7월 30회, 8월 147회, 9월 168회, 10월 218회, 11월 243회, 12월 157회로 이 중 1월과 2월, 11월에 가장 많은 독서율을 보였으며, 6, 7월에 가장 저조한 독서율이 나타났다.

<表 6> 夕講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2	15	18	19	54	54
2	1윤 18	5	13	6	0	0	0	4	1	4	2	12	66	120
3	8	13	15	7	3	1	0	4	1	11	15	15	93	213
4	23	14	13	10	7	2	0	9	7(윤)11	3	16	10	125	338
5	8	5	1	2	5	0	0	0	6	6	6	9	48	386
6	5	5	3	13	11	1	0	5	9	11	14	16	93	479
7	12	13	2	7	6윤2	0	0	5	9	16	8	0	80	559
8	7	4	2	2	6	0	0	11	6	4	14	0	56	615
9	4	21	10	9	6	1	0	2	7	2	4	11	77	692
10	12	9	0	0윤2	3	0	5	10	1	13	0	0	55	747
11	11	13	7	5	9	3	0	3	5	17	18	12	103	850
12	13	11	16	10	0	0	0	6	7	3	15	1윤12	94	944
13	16	14	8	6	7	3	4	16	10	13	15	11	123	1067
14	13	14	6	10	8	2	0	0	1	0	0	0	54	1121
15	0	1	0	5	3	0	0	0윤3	3	7	3	0	25	1146
16	4	3	1	2	0	0	0	0	2	3	5	0	20	1166
17	0	2	2	1	2	0	0	0	0	1	0	0	8	1174
18	0	1	3	1윤3	2	0	0	1	3	0	1	0	15	1189
19	0	1	1	8	8	0	1	5	5	7	8	1	45	1234
20	9	12	6	12	10	5	0	3	4	5	9	7윤4	86	1320
21	15	12	10	6	8	0	6	9	6	5	13	3	93	1413
22	9	10	5	2	2	0	2	3	7	11	13	2	66	1479
23	10	12	9	5	6	1	0	1	4	1윤5	3	7	64	1543

24	4	5	5	1	5	1	0	6	3	3	6	0	39	1582	
25	11	8	4	4	8	0	0	0	0	0	0	2	37	1619	
26	4	9	4	5	2	4	6	5	5	5	3	0	52	1671	
27	5	5	2	2	3	0	1	0	6	0	0	0	24	1695	
28	0	0	0	3	1	5	1	5	4	3	4	0	26	1721	
29	4	4	5	3	0	0	0	0	1	2	1	0	24	1745	
30	1	4	2	2	3	0	0	2	0	4	1	0	19	1764	
31	1	4	3	5	3	0	0	0	3	6	3	0	28	1792	
32	6	5	1	3	4	0	1	1	0	1	2	0	24	1816	
33	3	6	1	4	2	0	0	3	5	3	2	1	30	1846	
34	2	5	0	1	2	2	0	3	4	4	2	0	25	1871	
35	3	4	2	4	0	0	0	4	4	4	7	1	33	1904	
36	7	5	6	3	2	2	0	5	1	4	8	1	44	1948	
37	2	2	4	4	5	2	0	1	5	7	3	1	0	36	1984
38	6	7	6	6	6	0	2	7	5	8	3	0	56	2040	
39	0	0	0	3	1	0	0	1	3	5	0	0	13	2053	
총회수	257	272	178	187	163	33	30	147	168	218	243	157		2053	

4.4 夜對

야대는 숙직하는 경연관들을 초대하여 술도 한잔씩 하면서 읽은 책의 내용을 소재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자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가끔씩 실시하였으며, 의관은 편복차림으로 하였다. 장소는 집권 초년부터 비현각으로 하였다. 그러나 비현각은 세월이 흐르면서 중종의 책과 문서가 많아지면서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집권 37년 만에 중종은 비현각이 책과 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서 비좁고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장소를 사정전으로 교체하자는 제안도 했으나¹⁶⁰⁾ 참찬관 洪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다.¹⁶¹⁾ 사정전은 정사를 처결하는 장소이므로 경연관들을 불러 친근하게 강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종의 야대는 거의 기록이 없다. 1년에는 3회, 2년 5회, 3년 2회, 4년 5회, 5년 6회, 6년 4회, 7년 2회, 8년 4회 등 39년 까지 총 131회의 결과가 보이고 있다. 이는 중종이 밤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160)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1月 1(丁未) 卷99. 冊18. p.629.

161)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1月 7(癸丑) 卷99. 冊18. p.631.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表 7> 夜對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0	2	0	1	3	3	
2	0윤1	0	0	0	0	0	0	2	0	0	2	0	5	8	
3	0	0	0	0	0	0	0	0	0	2	0	0	2	10	
4	0	3	0	0	0	0	0	0	0(윤)	0	2	0	5	15	
5	0	0	0	0	0	0	0	2	0	2	2	0	6	21	
6	1	0	0	0	0	0	0	0	0	1	0	2	4	25	
7	0	0	0	0	윤0	0	0	1	0	1	0	0	2	27	
8	0	0	0	0	0	0	0	1	1	1	1	0	4	31	
9	1	1	0	0	0	0	0	0	0	0	0	1	3	34	
10	0	0	0	0윤0	0	0	0	0	0	1	0	0	1	35	
11	2	1	0	1	2	1	0	1	4	2	3	1	18	53	
12	3	8	3	2	0	0	0	1	2	0	2	0(윤)	21	74	
13	4	1	1	0	0	0	1	0	1	3	2	1	14	88	
14	1	1	0	1	0	0	0	2	1	0	0	0	6	94	
15	1	0	0	0	0	0	0	0	0윤1	0	1	1	1	5	99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9
17	0	2	1	3	1	0	0	0	1	1	0	0	9	108	
18	0	0	1	1윤0	0	0	0	0	1	1	0	0	4	112	
19	0	1	0	1	0	0	0	0	1	1	0	1	5	117	
20	1	0	0	0	0	0	0	0	1	0	1	0	3	120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
22	1	0	0	0	0	0	0	0	0	1	0	0	2	122	
23	1	0	1	0	1	0	0	0	0	0윤0	0	1	4	126	
24	0	0	0	0	0	0	0	0	0	1	0	0	1	127	
2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7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7
2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7
28	0	0	0	0	0	0	0	0	0	0	1	0	1	0	128
29	0	0윤0	0	0	0	0	0	0	0	0	0	0	0	0	128
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8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8
3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8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8
34	0	0	0	0	0	0	0	0	0	1	0	0	1	0	129
3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9
3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9
37	0	0	0	0	0	0	0	0	0	0	1	0	1	0	130
38	0	0	0	0	0	0	0	0	0	1	0	0	1	0	131
3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1
총회수	17	18	7	9	4	1	1	11	13	23	18	9	131	131	

이상은 강별로 중종의 경연회수를 조사하여 독서토론에 참여한 실상을 파악한 것이다. 그가 집권 기간에 열심히 독서한 흔적은 보이나 상대적으로 쉬는 날도 많았다는 근거가 밝혀졌다. 따라서 중종이 독서를 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중종은 집권초기에는 열심히 책을 읽는 왕이었다. 쉴 틈이 없이 경연관들과 독서하면서 대간들과 정사를 논의하였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경연을 정지하지 않고 열심히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자 승정원에서는 왕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간들의 미안함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정지하기를 건의하였다. 중종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 삼복이 지날 때까지 쉬었다 하자고 한 바 있다.¹⁶²⁾ 그러나 홍문관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주강과 석강은 정지하여도 조강은 계속해서 하도록 권고하였다. 중종 2년에는 6, 7, 8월에 조강에서 책을 읽은 날이 많았다. 그리고 그해 9월 18일과 11월 1일에는 감기증세로 며칠간 경연을 정지한 것뿐이었으며, 11월 17일부터는 날씨가 추워 조강만 정지하고 주강과 석강만 실시하였다. 보편적으로 선왕들은 여름과 겨울철은 거의 휴강에 들어갔으나 중종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날씨가 추우면 조강, 주강, 석강을 적절하게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하려는 의욕이 넘친 중종이 4년 11월에 열흘 동안 경연을 실시하지 않자 경연관들이 중종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설경 黃汝獻은 경연을 하지 않으면 궁첩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항상 경연을 열어 사대부를 접견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중종이 학문을 좋아하는 임금인 줄 알았는데 경연에 나가지 않아 학문을 취미삼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된다고 하였다. 중종 자신은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完原君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다.¹⁶³⁾ 한때는 경연관이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날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 엄동설한에 경연에 나가 독서하지 않으면 언제 한단 말이냐? 하면서 요즈음은 날씨가 매우

162) 朝鮮王朝實錄. 中宗 02年 5月 28(庚午) 卷03. 冊14. p.152.

163) 朝鮮王朝實錄. 中宗 04年 11月 07(乙丑) 卷10. 冊14. p.389.

成宗(1457-1494)은 부인 12명에 자녀는 16남 12녀를 낳았다. 여기서 完原君은 아홉 번째 부인 숙의 홍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면서 전체 16남중 4남이다. 성종이 숙의 홍씨에게서만 7남 3녀를 두었다. 중종은 공혜왕후 한씨가 후사없이 17세로 요절하자 그 다음으로 왕비가 된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난 아들 진성대군이다.

추우니 조강만 정지하자고 한 적이 있다.¹⁶⁴⁾ 이는 중종이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쉬는 날을 아껴가며 독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여름, 겨울에는 거의 쉬고 독서한 날이 적어졌다. <표 7>에서 보듯이 야대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중종 12년 10월 21일에는 계속해서 경연을 중지하자 김정 등이 자주 경연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어 했다. 중종은 ‘내가 여러 날 주장, 석강은 나갔으며, 그 뒤에는 감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¹⁶⁵⁾ 신병으로 독서를 중단한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이유로 중지했다면 독서의욕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중종은 집권 8년부터 독서일수가 적어지기 시작해서 14년 기묘사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종 16년(1521)에는 심정, 남곤 일파인 宋社連의 신사무옥으로 安處謙, 韓忠 등이 숙청된 사건, 중종 17년(1522)에는 常山都正 李末孫 사건 등이 일어났다. 사건의 경위는 왕실사람인 常山都正 李末孫이 9월 초에 상언한 것이 상달되지 않아 9월 15일에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 승지들이 숨기고 중종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과 승지들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일을 조사한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다. 원래는 常山都正이 花山君의 종으로 첩을 삼았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을 「璿源譜」에 올리지 못하게 되자 상언을 올렸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간과 홍문관이 서로 다투느라 경연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해 중종의 독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본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 되자 9월 22일에 정지한 경연을 20일 만인 10월 18일에 재개하고, 19일, 20일은 세자가 결혼하는 날이라 경연을 정지하였다.¹⁶⁶⁾ 그리고 3년 후인 중종 20년(1525)에 윤세창 등의 모역사건이 일어났으며, 중종 22년(1527)에는 김안로의 아들 김희가 유자광 등을 제거하고자 일으킨 동궁의 작서의 변과, 중종 26년(1531) 김안로가 다시 집권하면서 윤원로와의 대립이 정국의 소용돌이로 이어졌다. 중종은 결국 말년으로 갈수록 독서에 대한 의욕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었다. 낮이나 밤이나 독서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홍문관 부제학 尹豊亨 등이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164) 朝鮮王朝實錄. 中宗 04年 11月 13(辛未) 卷10. 冊14. p.393.

165)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10月 21(癸亥) 卷30. 冊15. p.342.

166) 朝鮮王朝實錄. 中宗 17年 10月 17(己丑) 卷46. 冊16. p.169.

“첫째, 마음씨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 경연에 나아가시는 것이 처음에는 잦았었는데, 중간에는 드물게 하셨으며, 便殿에서의 夜對 역시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宦官·宮妾과 친하게 지내는 때는 많고 현명한 士大夫를 접견하는 때는 적어서 학식을 넓히고 心性을 닦는 공부가 중간에 끊어지게 된다면 어찌 닦고 바로잡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다시 학문에 더 노력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으소서.”¹⁶⁷⁾

이와 같은 건의를 누차 경연관들이 했으나 중종의 독서는 진보되지 않았다. 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중종이 밤낮으로 궁첩들과 가까이 하므로 책을 멀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대에 배정된 초까지도 산천에 기도드리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을 보면¹⁶⁸⁾ 이는 밤에 독서를 하지 않으니까 초가 남아돌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종의 독서력을 저하시킨 원인을 보면 첫째는 왕위찬탈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데 정렬을 바치는 시간이 많았으며, 둘째는 조광조의 학설에 따라 성리학에 힘쓰다가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가 무너지자 학문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으며, 셋째는 기묘사화 이후 신사무옥, 이말손 사건, 동궁의 작서의 변, 윤원로와 김안국의 대립 등의 국내사건과 일본과의 임신조약체결(1512), 추자도왜변, 동래염장왜변(1522), 전라도왜변(1529), 사랑진왜변(1544) 등 국외적인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넷째는 시간이 가면서 환경의 유혹에 못 이겨 궁첩들과 같이한 시간이 많아진 점, 기타 자신의 신병상의 문제와 기후와의 관계 등이 독서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結 言

이상으로 중종 1년부터 39년까지의 경연제도와 중종이 읽은 책, 중종과 독서토론을 전담했던 경연관 등을 독서일정별로 조사하여 중종의 독서력을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7) 朝鮮王朝實錄. 中宗 32年 12月 12(丁巳) 卷86. 冊18. p.150.

168)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10月 30(丙午) 卷99. 冊18. p.629.

1) 經筵은 成宗朝와 동일한 3강을 하였으며, 경연관으로는 당상관 정3품 이상과 당하관인 낭청으로 구분하였다. 즉, 영사, 지사, 동지사, 특진관, 참찬관의 당상관과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 낭청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종 12년(1517)에 성종조의 제도를 일부분 개편하여 成宗朝에는 경연관이 아닌 재상이 朝講에만 참여했던 것을 중종의 경우는 朝講, 晝講, 夕講에 2명씩 순번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2) 중종이 38년 2개월간 집권하면서 읽은 책이 조강에서 「尙書」, 「春秋」, 「詩經」, 「大學」, 「中庸」, 「易經」, 「綱目」, 「禮記」, 「大學衍義」, 「續綱目」, 「大學衍義補」 등 10종이며, 주강에서는 「綱目」, 「尙書」, 「大學衍義」, 「高麗史節要」, 「小學」, 「大學衍義補」 등 5종, 석강에서는 「大學衍義」, 「論語」, 「孟子」, 「宋鑑」, 「高麗史節要」, 「論語」, 「春秋」, 「尙書」, 「禮記」, 「綱目」, 「易經」 등 11종, 야대에서는 「大學衍義」, 「論語」, 「孟子」, 「宋鑑」, 「高麗史節要」, 「近思錄」, 「大學」, 「論語」, 「綱目」 등 9종을 읽었다. 중복된 책을 제외하면 「尙書」, 「綱目」, 「大學衍義」, 「春秋」, 「論語」, 「詩經」, 「孟子」, 「大學」, 「中庸」, 「高麗史節要」, 「宋鑑」, 「小學」, 「易經」, 「近思錄」, 「禮記」, 「續綱目」, 「大學衍義補」 등 17종이다. 이는 19세부터 58세까지의 독서량이다. 부왕인 성종이 25년 동안 26종의 책을 읽은 것에 비하면 독서량이 저조한 편이다.

3) 독서토론에 참여한 經筵官은 特進官을 포함하여 총 27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종이 38년 2개월 동안 272명과 17종의 책을 가지고 강독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부진한 독서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經筵에서 독서한 횟수로 朝講은 총 2,703회, 晝講은 총 1,354회, 夕講은 2,053회, 夜對는 131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년부터 14년까지는 책에 흥미를 느끼고 성리학 연마에 충실했음을 엿 볼 수 있으나 己卯土禍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독서의 횟수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독서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경연관들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독서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독서토론에 임하는 자세도 보였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쉬는 날이 많아져 독서량이 감소되었으며, 한 책을 읽어도 완독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거의 1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심지어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의 경우는 집권 초기부터 읽기 시작하여 30여년이 넘도록 완독하지 못했다.

5) 중종의 독서력이 저하된 이유는 趙光祖의 학설에 따라 성리학에 힘쓰다가 己卯土禍로 인해 趙光祖 일파가 무너지자 학문의 침체를 부른 것과 그 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밤에는 宮妾들과 대화, 기타 자신의 신병상의 문제 및 기후와의 관계 등이 독서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종은 문신들의 인성을 위해 사가독서 및 월강제도를 실시하고, 백성들을 위해 서점설치시도, 책의 번역, 도서출판 및 수입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原典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金安老, 希樂堂稿.

金淨, 冲庵集.

金正國, 思齋集.

韓忠, 松齋先生文集.

鄭士龍, 湖陰雜稿.

趙光祖, 靜菴先生文集.

蘇世讓, 陽谷集.

沈彦光, 漁村集.

燃藜室記述.

李籽, 陰崖集.

李苻, 容齋集.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金重權. “中宗朝의 賜暇讀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18집(1999. 12).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537-574.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燕山君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 제37집(2007). 83.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附錄> 朝講資料와 經筵官 및 臺諫

執權	朝講科目	經筵官
1년	尙書	영사: 柳洵, 柳順汀, 具壽永, 朴元宗, 申浚. 特進官: 朴安性, 安潤德, 柳濱, 金封. 侍講官: 柳崇祖, 李胤, 成夢井, 李世仁. 동지사: 金詮. 시독관: 崔淑生, 金世弼, 金安國, 柳崇祖, 金綴文(11월). 검토관: 김관, 金綴文, 金乃文, 대사간: 安瑒, 尹喜孫. 집의: 崔連孫, 李惟清, 成允祖. 장령: 金彦平, 金謹思. 지평: 辛世瑚, 宋欽. 대사헌: 李季孟. 정언: 朴光榮, 朴巨鱗. 사간: 李世人, 金末文. 헌납: 康仲珍
2년	尙書	영사: 朴元宗, 成希顔, 申浚, 柳順汀, (鄭眉壽, 金勘 삼공이 아니라고해서 바로고쳐됨), 朴榑. 특진관: 李蓀, 柳濱, 李季男, 李坵, 閔祥安, 安潤德, 成世純, 鄭光世, 鄭光弼, 張順孫. 지사: 宋軼, 金詮. 동지사: 申用漑, 許輯. 참찬관: 李胤. 시강관: 慶世昌, 金綴文, 金乃文(11월), 시독관: 金寬, 金安國, 金駿孫, 趙舜, 慶世昌, 成允祖, 金克幅(11월). 검토관: 安處誠, 金乃文, 李思鈞, 金安老. 사경: 魚泳濬, 설경: 安漢英. 진경: 成世昌. 집의: 成允祖, 尹殷輔, 柳希輒, 金謹思. 사간: 金末文, 李世應, 金駿孫, 金璫, 李成童. 獻納: 金崇祖, 朴祥. 지평: 辛世瑚, 宋欽, 柳義臣, 李思鈞, 李思恭, 李賢輔. 정언: 朴光榮, 朴巨鱗, 趙邦彦, 申奉全, 金磁, 權福. 기사관: 李希曾, 鄭熊. 대사헌: 李季孟, 閔祥安, 安潤孫, 李惟清, 張順孫. 장령: 韓汲, 安彭壽, 康仲珍, 李元成, 曹浩, 慶世昌, 李希孟, 趙舜. 대사간: 姜景鉞, 成夢井, 韓世桓, 權弘, 南慄.
3년 9월	春秋	영사: 朴元宗, 朴榑, 成希顔, 柳順汀, 盧公弼, 柳洵, 金壽童, 朴安性. 특진관: 李惟清, 張順孫, 尹喜孫, 成世純, 朴安性, 李季男, 李自建, 李蓀, 李世英, 曹繼商, 孫澍. 참찬관: 李世仁, 宋千喜. 지사: 申用漑, 金應箕, 洪景舟, 金應箕, 宋軼. 동지사: 鄭光弼, 申用漑, 金詮, 金應箕. 시강관: 崔淑生, 金璫, 安彭壽, 朴光榮, 金寬, 柳希渚. 시독관: 洪彦弼, 安處誠, 李長坤, 安彭壽, 朴光榮, 申鎰, 李自華, 尹殷弼. 검토관: 韓效元, 尹殷弼, 權福, 柳沃. 사경: 安漢英, 洪彦弼. 설경: 洪彦弼. 진경: 洪彦弼, 成世昌, 閔壽千. 기사관: 鄭熊, 尹仁鏡, 蘇世良, 權機, 金希壽, 南褒, 柳灌, 任樞. 집의: 慶世昌, 柳希渚, 宋好義, 安彭壽, 朴光榮. 장령: 趙舜, 金克幅, 李偉, 金綴文, 李希孟, 徐祉. 헌납: 朴祥, 閔愾, 申鎰, 李蕃. 지평: 金安國, 許磁, 徐厚, 尹世豪, 安處誠, 韓效光. 정언: 金安老, 金磁, 金彦辛, 金淨, 金湜, 金乃文, 許遲, 尹宕, 宋好義, 朴守紋, 李希曾. 대사헌: 張順孫, 曹繼商. 대사간: 南慄, 李世仁, 李自堅, 柳世琛. 사간: 金崇祖, 金彦平

4년 9월	詩經	영사 柳洵, 成希顔, 朴元宗, 柳順汀, 金壽童. 지사: 金應箕, 洪景舟.. 동지사: 鄭光弼, 金詮. 특진관: 孫澍, 李蓀, 辛允武, 洪景舟, 田霖, 李季南, 南袞, 成夢井, 張順孫, 申用漑, 鄭光弼, 李堦, 李自健, 李坫, 金瑄. 참찬관 宋千喜, 李世仁, 孫仲墩. 시강관: 金瑒, 柳希渚, 金世弼, 金寬. 시독관 洪彦弼, 安處誠, 李思鈞, 金淨, 李耜. 검토관: 金瑛, 洪彦弼, 崔命昌, 金正國, 李膺. 사경 閔壽千, 설경: 黃汝獻 지평: 申錦, 韓效元, 朴以寬, 權福, 金漑, 許遲, 柳雲, 金湜. 장령: 尹希仁, 李自華, 金安國, 許磁, 韓效元, 柳仁貴. 헌납: 柳思敬, 金楊震, 柳溥, 趙邦彦. 정언: 洪彦弼, 南袞, 柳沃, 崔命昌, 成世昌, 孔瑞麟, 權希孟, 金璇. 사간: 李希孟, 尹耕, 金克愐. 대사간: 柳世琛, 崔淑生, 姜景紘, 李世仁, 成世貞. 집의: 朴光榮, 趙舜, 權敏手. 기사관: 鄭熊. 대사헌: 安瑒, 金詮, 朴說
5년 1월	詩經	영사: 朴元宗, 金壽童, 許磁, 成希顔, 盧公弼, 柳順汀, 柳洵. 특진관: 沈貞, 李蓀, 辛允武, 洪景舟, 成夢井, 李坫, 李堦. 지사: 權鈞, 鄭光弼, 金應箕. 동지사: 鄭光弼, 金應箕, 金詮, 申用漑. 검토관: 崔命昌, 李耜, 沈貞, 金希壽, 權機. 참찬관: 金世弼, 李思鈞(9월), 李自堅, 李希孟, 宋千喜, 李長坤. 시강관: 李思鈞(9월이전), 安處誠, 安彭壽, 申儼, 金克愐, 金寬. 시독관 金淨, 李思鈞, 安彭壽, 李蘋, 金希壽, 李耜, 金乃文, 安處誠, 徐厚. 설경: 黃汝獻 사경: 閔壽千, 黃汝獻. 진경: 蘇世讓, 柳墩, 鄭士龍. 기사관: 蘇世讓, 柳墩. 장령: 徐厚, 李沆, 柳思敬, 柳仁貴, 金協. 정언: 金正國, 金璇, 李彦浩, 蘇世良, 閔壽千. 집의: 金克愐, 尹世豪, 李自華, 金寬. 지평: 許遲, 金湜, 金協, 朴巨麟, 趙邦彦, 金禹瑞, 金磁, 宋好義. 대사간: 成世貞, 柳世琛, 崔淑生. 대사헌: 洪淑, 鄭光弼, 曹繼商. 사간: 許磁, 李鐵均. 헌납: 權希孟, 金磁, 成世昌.
5년 10월	大學, 中庸	* 대학에 참여한 경연관- 영사: 成希顔, 金壽童, 柳順汀. 특진관: 李蓀. 참찬관: 金世弼, 李自堅. 지사: 朴說. 동지사: 申用漑. 시강관: 徐厚 * 중용에 참여한 경연관- 영사: 成希顔. 특진관 李坫, 동지사 朴說, 시강관 許磁, 金克愐.
6년. 1월	易經	영사: 柳順汀, 成希顔, 盧公弼, 柳洵, 金壽童, 宋軼. 특진관: 洪淑, 孫澍, 高荊山, 李坫, 李季男, 柳崇祖, 李蓀. 지사: 權鈞, 朴說, 申用漑. 참찬관: 宋千喜, 金世弼, 金瑒, 李世仁, 李思鈞. 기사관: 李孝彦, 李守英. 시강관 徐厚, 李沆. 시독관: 金磁, 金希壽, 宋好義, 金淨. 검토관: 蘇世良, 孔瑞麟, 黃汝獻. 사경: 鄭士龍. 설경: 柳墩. 진경: 蔡忱. 正言 崔重演. 대사간: 慶世昌. 사간: 許磁, 집의: 尹希仁. 헌납: 成世昌, 李彦浩, 鄭忠樑. 지평: 李蘋, 洪彦弼, 權希孟, 金希壽, 慶倣. 정언: 尹仁鏡, 蘇世良, 崔重演. 대사헌: 安瑒, 장령: 金協, 安處誠.
7년	易經	영사: 成希顔, 宋軼, 金壽童. 동지사: 尹金孫, 鄭光弼. 특진관: 張順孫, 李蓀, 崔漢洪, 黃孟獻, 權弘. 참찬관: 金世弼, 司成 金安國, 시독관: 權機. 검토관: 朴祥, 李孝彦, 사경: 金安世, 지평: 權五紀, 집의: 閔愼, 장령: 金協. 정언: 金世準,

8년	易經	영사:宋軼. 시강관:尹殷輔, 시독관:柳灌, 사경:李清.
9년	綱目	영사:宋軼, 鄭光弼, 金應箕, 특진관:李長坤, 成夢井, 지사:孫澍. 참찬관:朴召榮, 시강관:許磁, 崔命昌, 李彦浩, 柳溥, 시독관:蘇世讓, 검토관:柳墩, 蔡忱, 李挺豪, 사경:李清, 閔壽元, 전경:金絀, 기사관:沈義欽, 집의:金楊震.
9년 4월	禮記	영사: 鄭光弼, 金應箕, 특진관: 安瑯, 姜渾, 姜澂. 동지사: 孫澍, 南袞, 申用漑. 참찬관: 朴召榮. 시강관: 李彦浩, 尹殷輔. 검토관: 柳仁淑, 李挺豪, 蔡忱, 李清. 사경: 閔壽元. 전경: 任權. 장령: 權希孟, 金希壽. 정언: 南世準, 南孝義, 侍讀官: 柳溥, 崔命昌, 趙邦彦, 任樞, 기사관: 許洽, 사간: 金協, 李賢輔, 지평: 任樞. 대사헌: 李自堅, 成夢井. 헌납: 崔重演.
10년	禮記	영사: 鄭光弼, 金應箕. 특진관: 成夢井, 李繼孟, 金錫哲, 高荊山. 동지사: 南袞. 참찬관: 金謹思, 시강관: 閔壽千. 시독관: 申光漢, 任樞, 柳仁淑. 검토관: 李清. 설경: 任權. 전경: 任權, 鄭應, 奇遵.
11년	禮記	영사: 金應箕, 申用漑. 동지사: 朴說, 南袞, 宋千喜, 張順孫, 특진관: 金錫哲, 閔祥安, 李坵, 李長坤, 참찬관: 申鎰, 尹殷輔, 李自華, 金磁, 金安國, 시강관: 任樞, 李蘋, 柳溥, 시독관: 李清, 申光漢, 朴守紋, 劉灌, 검토관: 尹自任, 趙光祖, 韓忠. 사경: 奇遵, 任權. 설경: 奇遵, 鄭應. 전경: 奇遵, 李若水. 집의: 金楊震, 사간: 柳溥.
12년	禮記	영사: 申用漑. 특진관: 李自健. 동지사: 尹金孫. 참찬관: 金淨. 시강관: 趙光祖, 李紆. 시독관: 申光漢, 金絀. 검토관: 趙光祖, 柳庸謹, 金絀, 洪彦弼, 李紆, 奇遵. 집의: 柳溥, ,
12년 8월	大學衍義	영사: 申用漑, 鄭光弼. 특진관: 安潤德, 柳湄, 知事: 張順孫, 參贊官: 金淨, 趙邦彦, 金淨, 李紆, 柳雲, 시강관: 趙光祖, 金希壽, 李成童, 孔瑞麟, 閔壽千, 시독관: 柳庸謹, 金絀, 表憑, 검토관: 崔山斗, 奇遵, 孫洙, 사경: 鄭應. 대사헌: 崔淑生, 대사간: 許磁, 집의: 朴守紋
13년	大學衍義	영사: 鄭光弼, 申用漑. 특진관: 金克福, 安潤德, 尹熙平, 許磁, 姜澂, 孫澍. 지사: 張順孫. 동지사: 安瑯, 南袞. 참찬관: 金淨, 韓效元, 李紆, 趙光祖(3월). 시강관: 趙光祖(1월), 金正國, 申光漢, 尹殷弼, 鄭士龍. 시독관: 閔壽元. 검토관: 奇遵. 설경: 李希閔. 사간: 鄭忠樑, 孔瑞麟. 지평: 李佑, 李清, 鄭應. 정언: 任權, 梁彭孫. 대사헌: 崔淑生. 장령: 權機, 閔壽千.
13년 5월	「續資治通鑑綱目」	영사: 鄭光弼, 安瑯, 申用漑. 지사: 南袞, 金安國. 특진관: 金克福, 許磁, 趙元紀, 李長坤. 참찬관: 趙光祖, 金正國, 朴英, 崔命昌(12월). 시강관: 韓忠, 金絀, 閔壽元, 崔命昌, 朴世熹. 시독관: 尹自任, 張玉. 검토관: 孫洙, 具壽福. 사경: 李認. 설경: 沈達源. 대사헌: 趙光祖(12월). 사간: 申光漢. 장령: 金混. 정언: 孫洙. 지평: 任權.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14년	續綱目	영사: 鄭光弼, 申用漑, 安瑒. 지사: 李籽, 李長坤. 동지사: 金安國, 金淨, 趙光祖(9월). 시강관: 朴世熹, 李清, 金絃, 金湜, 韓忠, 鄭膺, 知事: 金安國, 헌납: 丁玉亨, 掌令: 文瓘, 참찬관: 孔瑞麟, 金淨, 尹自任, 趙光祖(4월), 韓忠, 朴世熹(7월), 金絃(10월), 朴薰(11), 檢討官: 具壽福, 領事: 鄭光弼, 시독관: 李清, 李希閔, 張玉. 검토관: 李認, 具壽福, 장령: 金湜, 奇遵.
15년	續綱目	영사: 金詮, 李惟清, 南袞. 지사: 李苻, 洪淑. 동지사: 李沆. 특진관: 韓效元, 韓亨允, 高荊山, 金克福, 柳溥, 尹珣, 崔重洪, 金世弼, 曹繼商. 참찬관: 李蘋, 尹希仁, 朴塚. 시강관: 柳溥, 鄭士龍, 朴守紋, 任樞, 徐厚, 蔡忱. 시독관: 孫洙, 許暹, 表憑, 蘇世良. 전경: 李海. 장령: 蔡忱, 蔡紹權. 정언: 韓承貞. 집의: 徐厚, 南世準. 헌납: 南孝義. 지평: 任權, 金鈺.
16년	續綱目	영사: 남근, 金詮. 지사: 洪淑. 특진관: 金克福. 시강관: 任樞. 지평: 孫洙. 참찬관: 徐厚, 尹殷弼, 崔世節.
17년	續綱目	영사: 남근, 權鈞, 李惟清. 지사: 張順孫, 沈貞. 동지사: 金謹思. 특진관: 曹繼商, 李繼孟, 安潤德, 韓亨允. 참찬관: 尹希仁, 徐厚. 시강관: 孫洙, 蘇世良. 시독관: 金鈺, 蔡紹權, 尹止衡. 검토관: 沈思遜. 헌납: 魚泳濬. 장령: 魚得江.
18년 과 19년	續綱目	영사: 南袞, 李惟清, 權鈞. 지사: 李苻. 동지사: 金安老, 金克福. 특진관: 崔重洪, 沈思遜, 許礪. 시강관: 任樞. 시독관: 姜顯, 丁玉亨, 朴閔卿, 黃孝獻. 검토관: 洪敘疇. 대사간: 金楊震. 장령: 柳閔德. 헌납: 崔克成.
20년	大學衍義補	영사: 李惟清, 南袞, 權鈞. 특진관: 孫中暉, 韓亨允, 李思均, 尹殷輔, 沈貞, 韓亨允. 지사: 金克福, 洪淑. 동지사: 李沆. 참찬관: 黃孝獻(8월). 시강관: 鄭應麟, 丁玉亨, 鄭彥浩(12월). 시독관: 鄭彥浩, 金鏐, 黃孝獻. 검토관: 趙仁奎. 대사간: 南世準. 사간: 韓承貞, 朴閔卿. 집의: 曹漢弼, 李芑. 장령: 張季文. 지평: 奇迥. 정언: 安士彦. 대사헌: 洪彥弼, 金希壽.
21년	大學衍義補	영사: 權鈞, 李惟清, 南袞, 張順孫. 지사: 洪淑. 동지사: 李沆, 許礪. 참찬관: 趙邦彦, 尹仁鏡. 시강관: 李龜齡, 金鏐, 姜顯, 任權, 朴祐. 검토관: 宋麟壽. 장령: 尹思翼, 元繼蔡. 대사헌: 成雲. 대사간: 任樞.
22년	大學衍義補	영사: 李惟清, 沈貞, 정광필, 張順孫. 특진관: 沈貞, 韓亨允, 金瑒. 지사: 李苻, 李沆, 洪淑. 동지사: 許礪, 金克福. 시독관: 沈義欽, 黃恬. 참찬관: 柳灌. 대사간: 鄭應麟, 金麟孫, 任樞. 장령: 黃允峻, 李彦迪. 헌납: 金紀. 정언: 李濬, 金就精. 지평: 黃憲. 대사헌: 孫仲暉, 洪彥弼. 집의: 柳潤德.
23년	大學衍義補	영사: 鄭光弼, 沈貞. 특진관: 崔漢洪, 韓亨允, 金謹思, 李之芳. 지사: 洪淑, 李沆, 金克福. 동지사: 洪彥弼, 許礪. 시강관: 朴祐, 鄭彥浩. 시독관: 金希說. 장령: 李 屨. 정언: 李濬, 宋麟壽. 사간: 黃士祐. 지평: 黃憲. 대사간: 柳潤德, 金鏐. 지평: 洪石堅.

24년	大學衍義補	영사: 鄭光弼, 沈貞, 張順孫, 李荇. 특진관: 柳溥. 지사: 李沆(병조판서), 동지사: 曹繼高, 洪彥弼(이조판서). 시강관: 金希說, 權輓, 沈彦明. 검토관: 金弘胤. 장령: 李彦迪, 梁淵, 尙震. 집의: 朴命孫, 吳準. 대사간: 魚得江. 정언: 金廩. 사간: 沈彦慶.
25년	大學衍義補	영사: 鄭光弼, 張順孫. 지사: 金克福, 洪淑. 특진관: 金克成. 동지사: 尹殷輔. 시강관: 沈彦光, 黃憲. 시독관: 南世健, 金致雲. 검토관: 金義貞. 집의: 趙宗敬.
26년	大學衍義補	영사: 李荇, 鄭光弼, 張順孫. 특진관: 金謹思, 시강관 許洽, 侍讀官: 柳世麟, 尙震. 검토관: 蘇逢. 參贊官: 黃士祐. 說經: 具壽聃. 지사: 金克成, 韓效元. 同知事: 尹殷輔. 대사헌: 洪彥弼, 沈彦慶. 장령: 黃憲. 正言: 朴世翥. 사간: 梁淵, 姜顯. 집의: 吳準, 尹安仁. 대사간: 權輓, 黃士佑. 지평: 朴洪麟, 蔡無敦. 獻納: 金廩. 정언: 許沆. 지평: 金致雲, 李任.
27년	大學衍義補	영사: 韓效元, 張順孫, 鄭光弼. 검토관: 朴世翥, 河繼先. 참찬관: 沈彦光, 黃士祐. 정언: 許沆. 장령: 金光轍, 宋麟壽. 지평: 蔡無敦. 사간: 梁淵.
28년	大學衍義補	영사: 鄭光弼, 韓效元. 특진관: 李芑. 지사: 金安老. 동지사: 沈彦光. 참찬관: 權輓, 尙震. 시강관: 金希說. 시독관: 黃琦. 검토관: 具壽聃. 지평: 金廩. 대사간: 吳準, 梁淵, 尙震, 丁玉亨. 대사헌: 丁玉亨. 집의: 金希說. 지평: 韓淑. 사간: 成倫.
29년	大學衍義補	영사: 金謹思, 韓效元, 張順孫. 지사: 尹殷輔, 金安老, 李思鈞. 특진관: 許洽. 참찬관: 許沆. 시강관: 安玆, 權應昌, 蔡無擇. 시독관: 金遂性, 金光準. 대사간: 尹豐亨, 南世健, 李任. 대사헌: 許洽, 權輓. 사간: 朴洪麟. 집의: 蔡無擇. 헌납: 任弼亨. 장령: 韓淑.
30년	大學衍義補	영사: 金謹思, 金安老. 특진관: 李思鈞. 지사: 沈彦慶. 참찬관: 蔡無擇. 대사간: 蔡無擇(10월), 許沆. 대사헌: 黃士佑. 집의: 蔡世英. 장령: 林鵬. 정언: 李彭壽.
31년	大學衍義補	영사: 金安老, 尹殷輔, 金謹思. 특진관: 尹熙平, 丁玉亨. 지사: 沈彦慶. 동지사: 許沆, 許洽, 沈彦光. 시강관: 金光軫. 시독관: 蘇逢. 대사간: 蔡無擇, 成倫, 柳世麟. 집의: 鄭萬鍾. 장령: 林鵬. 대사헌: 蔡無擇. 헌납: 元壽長.
32년	大學衍義補	영사: 金安老, 尹殷輔, 金謹思. 특진관: 尹熙平. 지사: 許洽. 동지사: 沈彦光, 許沆. 참찬관: 黃憲. 시강관: 鄭惟善. 시독관: 朴從麟. 전경: 洪春年. 장령: 任弼亨. 정언: 李文樞. 사간: 鄭萬鍾. 헌납: 趙士秀, 李元孫. 대사헌: 權輓. 대사간: 尙震.
33년	大學衍義補	영사: 金克成. 특진관: 李龜齡. 지사: 蘇世讓, 시강관: 李彦迪. 시독관: 李夢弼, 대사헌: 梁淵. 대사간: 黃憲.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34년	大學衍義補	영사: 洪彥弼, 金克成, 柳溥, 尹殷輔. 특진관 尹熙平, 金安國, 지사: 梁淵. 동지사: 黃憲. 참찬관: 元繼蔡, 蘇世讓, 崔輔漢, 安玆, 시강관: 韓淑, 權應昌, 金光準. 시독관: 尹元衡, 任說, 宋世珩. 검토관: 林亨秀, 權轍. 장령: 洪暹, 權纘. 사간: 柳忠寬, 權應挺, 집의: 鄭惟善, 李莫. 헌납: 具壽聘, 대사헌: 黃憲, 林百齡, 柳灌, 尙震, 대사간: 申光漢, 愼居寬, 沈連源, 金光準. 정언: 鄭惟吉, 崔希孟, 金振宗, 지평: 尹元衡(9월),
35년	大學衍義補	영사: 尹殷輔, 洪彥弼. 동지사: 成世昌. 시독관: 具壽聘, 李潤慶. 장령: 李浚慶, 尹元衡, 사간: 林億齡. 대사간: 柳仁淑. 대사헌: 南孝義. 정언: 李英賢. 헌납: 李畚, 閔世良. 집의: 洪暹.
36년	大學衍義補	영사: 洪彥弼, 尹仁鏡, 尹殷輔, 柳溥. 지사: 曹繼商, 柳灌, 특진관: 金正國, 任權, 李芑, 宋麟壽, 權穰, 鄭順朋. 동지사: 梁淵. 참찬관: 權應昌, 李浚慶. 시강관: 宋世珩, 金魯. 시독관: 金半千, 權轍. 검토관: 李畚, 金天宇. 대사간: 洪暹, 李滌. 장령: 吳謙, 金瑞星. 정언: 金天宇. 대사헌: 鄭順朋, 沈連源. 헌납: 李畚. 지평: 權轍.
37년	大學衍義補	영사: 尹仁鏡, 洪彥弼, 尹殷輔. 특진관: 尹熙平, 尙震, 李芑, 申光漢, 權穰, 李彦迪. 지사: 金安國. 동지사: 梁淵, 李芑(8월). 참찬관: 李浚慶, 金光準. 시독관: 金魯, 尹鉉, 鄭彦愨. 사간: 金瑞星. 지평: 南應龍. 헌납: 金天宇. 대사헌: 李彦迪(8월), 申瑛. 정언: 李鐸, 李首慶. 집의: 任虎臣, 任說, 尹元衡. 대사간: 鄭大年. 장령: 金魯, 權轍.
38년	大學衍義補, 易經	영사: 洪彥弼, 尹殷輔. 지사: 李芑, 成世昌. 특진관: 李彦迪, 愼居寬. 참찬관: 柳辰叟. 시강관: 鄭彦愨, 羅世纘. 검토관: 金麟厚, 洪曇. 대사간: 鄭惟善, 具壽聘. 대사헌: 崔輔漢, 韓淑. 지평: 權勿. 정언: 李澤, 閔起文. 집의: 李夢亮. 사간: 任虎臣. 헌납: 南應龍.
39년	易經	영사: 尹殷輔, 尹仁鏡, 洪彥弼. 지사: 成世昌, 李芑. 동지사: 柳仁淑. 특진관: 任權, 姜顯, 申瑛. 참찬관: 鄭大年, 宋世珩. 시독관: 李英賢. 검토관: 李樞, 李湛, 尹玉. 정언: 金鎧, 趙光玉. 장령: 白仁英. 사간: 虞渾, 許伯琦. 대사헌: 林百齡, 閔齊仁, 李瀼, 鄭順朋. 헌납: 李首慶.

